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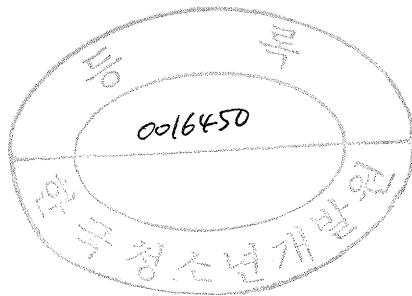
The Study on the Career Plan and the Supporting
Policies for Getting a Job of Dropout-Youths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책임자 : 이 경상(한국청소년개발원)

공동연구자 : 조 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박 창남(동해대학교)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3년도 협동연구사업] 의 일환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3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 요약】

가.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매년 전체 재학생의 약 1.8%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향후 사회구성의 취약계층적 집단화 되는 것을 막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경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쉼터, 기타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과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둘로 크게 나뉘, 그들의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이후의 불완전 근로경험,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실태 등에 대해 경험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방법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대안학교(학력인정 학교/비인정 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선도보호시설 등의 청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나 시설의 학업중단 청소년들(비진학 청소년 제외)이며, 전체적인 표집틀을 작성한 후,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가장 정교한 표집방법인 할당 표집(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조사는 2003년 7월 8일에서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집단면접에 의한 자기보고식(self-reported) 설문조사의 형태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모집단만 존재할 뿐, 표집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질적 면접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면접조사의 표집방법 및 전략으로는 애초에, 이론적 안내에 따라, 대표적 유의표집(representative purposive sampling)의 방법을 원용하여, 진학지향형, 취업지향형, 방임형의 세 유형별로, 각 3명씩 학업중단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학업중단 청소년 특유의 퇴행행위(withdrawl behavior), 즉, 사람을 만나기를 무척이나 꺼려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수행이 불가능하여, 인터넷 사이버 상의 중퇴 청소년들의 모임을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9명을 섭외,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다.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관련 요인으로 학업을 비자발적으로 중단하는 청소년이 과반수가 넘는 51.5%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가정관련 비자발적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정규학교로부터 이탈한 경우가 11.4%로 나타났다. 건강상의 개인적 요인은 전체 6.7%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시장과 관련된 학업중단 요인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요인은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16.3%에 불과한 반면, 과반수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학업중단이후의 불완전 근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후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의 68.8%로, 이러한 수치는 재학생 청소년들의 조사결과인 29.2%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참여가 재학생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가장 큰 이유로는 용돈부족과 생활비 부족 해결이며, 주로 학업중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냈다.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이유는 취업준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근로 여건은 우선, 비교육적이고 유해한 불법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장시간, 고임금의 준 직업적 성격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가운데, 일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재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이러한 부당대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행위에도 무지하거나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면접조사의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실태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은 크게 첫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직업을 가지려는 ‘순수 진학형’, 둘째, 아르바이트를 갖고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부업형 아르바이트’ 유형, 셋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려는 생각도,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는 ‘직업형 아르바이트’, 넷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형’의 네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순수진학형의 경우는 전체 응답

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고, 취업형의 경우가 35.6%의 진로설정 빈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업형 아르바이트의 경우(1.6%)와 직업형 아르바이트의 경우(3.0%)는 미미하다. 한편,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7.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와 관련된 진로교육을 받아 본 경험을 살펴보면,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24.3%,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12.9%, 진로관련 적성검사를 받아 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42.8%, 진로관련 상담을 받아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35.0%, 직업생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한 청소년들이 전체의 17.7%, 직업훈련을 받아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2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과 관련된 면접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설정을 진학 쪽으로 설정해 놓은 쪽이 우세하며, 대부분 학원이나 또는 혼자서 자신의 진로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차별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장기적으로 자신이 취업시에 겪게 될 차별대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으며, 사설학원 등의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 보조금 지급을 바라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서로간의 정보교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입시위주의 학교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예방책도 희망하고 있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3
II. 이론적 고찰	5
1. 청소년 학업중단의 개념	5
2. 청소년 학업중단의 실태	6
3. 정규학교로부터의 이탈 :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	11
4. 정규학교로부터의 이탈 이후 I : 불완전 근로 경험	17
5. 정규학교로부터의 이탈 이후 II : 대안적 삶의 선택과 향후 진로설정	21
6.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현황	27
가. 학업중단 청소년 불완전 근로 보호 관련 정책	27
나.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상담 관련 정책	30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직업훈련 관련 정책	33
III. 연구 방법	42
1.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방법 : 양적 설문조사	42
가. 표집틀의 작성	42
나. 표집 및 조사방법	43
다. 설문조사의 내용	48
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8
2. 기관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방법 : 질적 면접조사	51

가. 표집 및 조사방법	51
나. 면접조사의 내용	53
다. 면접대상자의 특성	54
IV. 결과 분석	55
1.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과 태도	55
가.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	55
나.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	64
2. 학업중단이후의 불완전 근로경험 실태	67
가.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 경험 유무	67
나.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 참여 이유	71
다.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의 여건	77
라.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와 인식	90
3. 학업중단이후의 대안적 삶의 선택	91
4.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실태	97
가. 기관 소속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97
나. 기관 비소속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116
V. 요약 및 정책제언	133
1. 요약	133
2. 정책제언	137
가. 청소년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 보호방안	138
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지원 방안	142
참고문헌	148
설문지	159

표 차례

<표 II-1> 교급별 · 연도별 중퇴자 분포(휴학자 포함)	7
<표 II-2> 교급별 중퇴자 분포(2001년)	8
<표 II-3> 교급별 · 중퇴원인별 중퇴자 분포(2001년)	9
<표 II-4> 교급별 · 성별 중퇴자 분포(2001년)	9
<표 II-5> 교급별 · 지역규모별 중퇴자 분포(2001년)	10
<표 II-6> 교급별 · 학년별 중퇴자 분포(2001년)	10
<표 II-7>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유형 - 이숙영 외(1997)	24
<표 II-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유형 - 박창남 외(2001)	25
<표 II-9>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유형 구분	27
<표 II-10>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내용별 상담실적 (2000년)	32
<표 II-11> 기능사 양성훈련 교과편성	34
<표 II-12> 기능사 양성훈련 훈련생 모집기준	34
<표 II-13>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 일반과정 훈련직종	35
<표 II-14>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 특별과정 훈련직종	36
<표 II-14>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 참여인원	36
<표 II-15>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37
<표 II-16> 2001년 직업전문학교 입학생 학력별 현황	37
<표 II-17> 교육 및 취업현황(단위 : 명)	40
<표 III-1> 학업중단 청소년 표집기관 리스트	45
<표 III-2> 현재 소속 기관 (단위: 빈도, %)	49
<표 III-3> 현재 나이(단위: 빈도, %)	49
<표 III-4> 성별(단위: 빈도, %)	49
<표 III-5> 학업중단 시점(단위: 빈도, %)	50
<표 III-6> 학업중단 시점(단위: 빈도, %)	50

<표 IV-1> 전체 학업 중단 이유 - 기관수용 청소년(단위: 빈도, %)	56
<표 IV-2> 학업중단시기별 학업중단의 첫번째 이유(단위: 빈도, %)	62
<표 IV-3> 성별 학업중단의 첫번째 이유(단위: 빈도, %)	63
<표 IV-4>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 - 기관수용 청소년(단위: 빈도, %)	64
<표 IV-5> 첫번째 학업중단 이유별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단위: 빈도, %)	65
<표 IV-6> 학업중단 시기별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단위: 빈도, %)	66
<표 IV-7> 성별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단위: 빈도, %)	67
<표 IV-8>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빈도, %)	68
<표 IV-9> 학업중단 이유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단위: 빈도, %)	69
<표 IV-10> 학업중단시기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단위: 빈도, %)	70
<표 IV-11> 성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단위: 빈도, %)	70
<표 IV-12>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단위: 빈도, %)	71
<표 IV-13> 학업중단 이유별 아르바이트 참여이유(단위: 빈도, %)	73
<표 IV-14> 학업중단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이유(단위: 빈도, %)	74
<표 IV-15> 성별 아르바이트 참여이유(단위: 빈도, %)	75
<표 IV-16>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단위: 빈도, %)	75
<표 IV-17>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의 경제적 도움 정도(단위: 빈도, %)	76
<표 IV-18>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체험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단위: 빈도, %)	77
<표 IV-19>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업종(단위: 빈도, %)	79
<표 IV-20>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지속 기간(전체)(단위: 빈도, %)	81
<표 IV-21>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지속 기간(일주일 기준)(단위: 빈도, %)	81

<표 IV-22>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지속 기간(하루 기준)(단위: 빈도, %)	82
<표 IV-23>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시간당 보수(단위: 빈도, %)	83
<표 IV-24>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경험 여부(단위: 빈도, %)	84
<표 IV-25>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경험 여부(단위: 빈도, %)	84
<표 IV-26>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 대처 방안(단위: 빈도, %)	85
<표 IV-27>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단위: 빈도, %)	86
<표 IV-28>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단위: 빈도, %)	86
<표 IV-29>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지식 정도(단위: 빈도, %)	87
<표 IV-30>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단위: 빈도, %)	91
<표 IV-31> 학업중단이유별 현재 소속기관 (단위: 빈도, %)	93
<표 IV-32> 현재 소속 기관별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단위: 빈도, %)	94
<표 IV-33> 소속 기관 교육과정 이수 후 향후 진로(단위: 빈도, %)	98
<표 IV-34> 소속 기관별 향후 진로(단위: 빈도, %)	99
<표 IV-35> 진학하려는 이유(단위: 빈도, %)	100
<표 IV-36> 진학을 위한 중점사항(단위: 빈도, %)	100
<표 IV-37>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려는 이유(단위: 빈도, %)	101
<표 IV-38> 취업(창업)을 원하는 이유(단위: 빈도, %)	102
<표 IV-39>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직업(단위: 빈도, %)	103

<표 IV-40>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시하는 점(단위: 빈도, %)	104
<표 IV-41> 직업선택시 어려운 점(단위: 빈도, %)	104
<표 IV-42> 취업에 대한 노력(단위: 빈도, %)	105
<표 IV-43> 직업 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야(단위: 빈도, %)	106
<표 IV-44> 원하는 직업훈련 기관(단위: 빈도, %)	107
<표 IV-45> 원하는 직업훈련 기간(단위: 빈도, %)	107
<표 IV-46> 원하는 직업훈련의 지원형태(단위: 빈도, %)	108
<표 IV-47> 직업훈련의 목적(단위: 빈도, %)	108
<표 IV-48>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단위: 빈도, %)	109
<표 IV-49> 진로 관련 강연이나 수업 수강 유무 — 학업중단이후 현재까지(단위: 빈도, %)	109
<표 IV-50> 수강 만족도(단위: 빈도, %)	110
<표 IV-51> 소속기관별 강연이나 수업 수강 유무(단위: 빈도, %)	110
<표 IV-52>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유무(단위: 빈도, %)	110
<표 IV-53> 활동 만족도(단위: 빈도, %)	111
<표 IV-54> 소속 기관별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유무(단위: 빈도, %)	111
<표 IV-55> 진로관련 적성검사 유무(단위: 빈도, %)	111
<표 IV-56> 적성검사 만족도(단위: 빈도, %)	112
<표 IV-57> 소속 기관별 진로관련 적성검사 유무(단위: 빈도, %)	112
<표 IV-58> 진로관련 상담 유무(단위: 빈도, %)	112
<표 IV-59> 상담 만족도(단위: 빈도, %)	113
<표 IV-60> 소속 기관별 진로관련 상담 유무(단위: 빈도, %)	113
<표 IV-61> 직업생활 직접체험 프로그램 체험 유무(단위: 빈도, %)	113
<표 IV-62> 프로그램 체험 만족도(단위: 빈도, %)	114
<표 IV-63> 소속 기관별 직접체험 프로그램 체험 유무(단위: 빈도, %)	114
<표 IV-64> 직업훈련(학원포함) 유무(단위: 빈도, %)	115
<표 IV-65> 직업훈련 만족도(단위: 빈도, %)	115
<표 IV-66> 소속 기관별 직업 훈련(학원 포함) 유무(단위: 빈도, %)	115

그림 차례

<그림 II-1> 교급별 · 연도별 중퇴자 추이(1980-2002)	7
<그림 II-2> Super의 진로발달단계(맹영임 외, 2001)	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통계연보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수가 전체 재학생의 약 1.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32,289명으로 전체 실업고 재학생 651,198명의 5.0%에 해당해 실업고생의 학업중단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선행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2)에 의하면,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학업중단 이후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불완전 고용상태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며, 비행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학교를 중도에 중단하였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결과 무분별한 임금착취와 저임금, 열악한 환경 등의 부당대우에 시달리거나 불건전한 유흥산업에 유입되어 종사하거나, 비행청소년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경로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의 손실을 의미한다.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청소년 유해환경 확대, 학교 부적응 학생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잠재적 학업중단 혹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여러가지 열악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하며, 또한,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화된 경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향후 취약계층적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전한 사회구성원과 노동력이 확보되지 못하며, 실업, 빈곤, 교정 등에 대한 더 많은 사회복지 비용의 지출을 의미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바람직하지 못한 하위집단적 존재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정에 대한 불만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학생들에게 마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학교에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며,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에게 생계문제에 대해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학교에 다니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교과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학교 환경에 대한 불만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학생에게 현재의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따라서, 이들이 기존의 제도권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이상, 대안적인 교육기회나 직업훈련기회를 갖고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사회가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예방 및 격리 수용·보호'의 관점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인 '자기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육성'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의 8개 관련부처와 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상담 운영체제 혁신(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의 확보, 학생의 상담에 대한 접근성 제고)·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진로지도 강화 등의 적극적인 예방정책과, 대안교육기회의 확충·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선(수업과 학력인정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평가인정기준과 인정절차 마련 예정)·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육성'의 입장에서 수립한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은 기존의 정부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애초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실태,

진로육구 실태와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세밀하고 경험적인 조사에 바탕한 적극적인 불완전 근로 보호대책,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대책에 관한 정책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실태, 진로준비 실태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방안에 대한 좀 더 엄밀하고 상세한 경험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실태, 진로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바탕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이 되는 진로준비 실태 및 취업지원 방안에 대한 경험적이고 정책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와 생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하위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존재하게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쉼터, 기타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과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둘로 크게 나뉘, 그들의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이후의 불완전 근로경험,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실태 등에 대해 경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II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 청소년 학업중단의 개념, 실태,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청소년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현황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III장에서는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과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표집과 조사방법 등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하게 될

것이다.

셋째, IV장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과 태도, 학업중단이후의 불완전 근로 경험 실태, 학업중단 이후의 대안적 삶의 선택,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실태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넷째, V장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을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근로 보호방안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지원방안의 둘로 나눠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학업중단의 개념

학업중단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ood(1973)은 학업중단자를 '정규학교교육기간 학교성원으로 있다가 중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혹은 그에 상당한 교육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사망이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제적당하거나 자퇴하는 초등학생 또는 중등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Page and Thomas(1977)는 학업중단자를 '학업을 마치기 전에 학교를 떠나는 사람'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Mcmillen 외(1996; 유성경 외, 1998에서 재인용)는 '학업중단이란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업중단의 개념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1997)에서는 학업중단을 '청소년자신, 가정, 학교,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이탈현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황창순(1996)은 학업중단자를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토대로 중퇴의 원인과 결과, 대상집단을 고려하여 개념을 정의해보면, '중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사망이나 전학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제적당하거나 자퇴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정의의 차원에서 보면, 정규학교의 제반 프로그램을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은 비진학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2. 청소년 학업중단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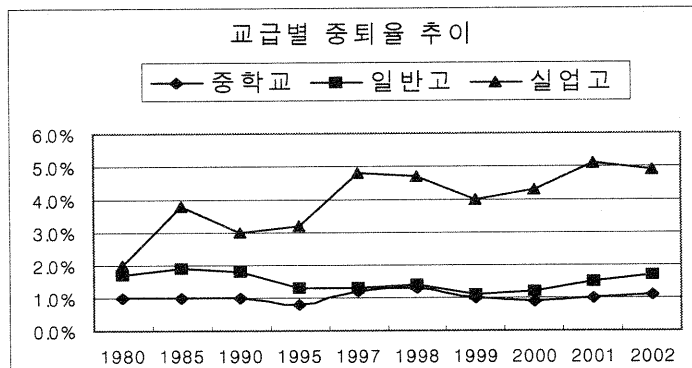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 학업중단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교육통계연보에서는 학업 중단자가 조사항목으로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년이 시작하는 시점의 학생수와 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학생수의 차이를 제시하는 '학생변동상황'의 수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가. 교급별 · 연도별 중퇴자 분포(1980-2002년 :휴학자 포함)

휴학자를 포함한 1980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퇴자 분포를 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실업고의 중퇴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고가 중학교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 꾸준히 보인다. 그런데 2000년을 기점으로 모든 교급에서 대체로 중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고에서 가장 증가의 폭이 크고, 다음으로 일반고와 중학교에서도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실업고에서는 2001년 중퇴율이 5.1%로서 역대 가장 높은 중퇴율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인 4.9%를 보이고 있다.

<표 II-1> 교급별 · 연도별 중퇴자 분포(휴학자 포함)

연도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합계	
	중퇴자 수	중퇴율	중퇴자 수	중퇴율	중퇴자 수	중퇴율	중퇴자 수	중퇴율
1980	24,988	1.0%	15,422	1.7%	15,062	2.0%	55,472	1.3%
1985	29,052	1.0%	23,913	1.9%	33,973	3.8%	86,938	1.8%
1990	23,568	1.0%	26,834	1.8%	24,641	3.0%	75,043	1.6%
1995	19,817	0.8%	16,100	1.3%	29,045	3.2%	64,962	1.4%
1997	26,897	1.2%	17,470	1.3%	46,066	4.8%	90,433	2.0%
1998	26,989	1.3%	18,905	1.4%	43,212	4.7%	89,106	2.1%
1999	19,481	1.0%	15,921	1.1%	33,714	4.0%	69,116	1.7%
2000	17,338	0.9%	16,520	1.2%	32,188	4.3%	66,046	1.7%
2001	19,097	1.0%	18,921	1.5%	33,215	5.1%	71,233	1.9%
2002	19,842	1.1%	20,166	1.7%	27,966	4.9%	67,974	1.9%



<그림 II-1> 교급별 · 연도별 중퇴자 추이(1980-2002)

나. 교급별 중퇴자 분포(2001년 :휴학자 제외)

휴학자를 제외한 중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의 전체 중퇴자 수를 계산하면 66,996명이며, 중학교 중퇴자가 25.8%, 일반고 중퇴자가 26.0%, 실업고 중퇴자가 48.2%로서 실업고 중퇴자의 수가 중학교 중퇴자의 약 2배, 일반고 중퇴자의 약 2배를 차지한다.

중퇴율을 살펴보면, 중학생 중퇴율이 0.9%, 일반고생 중퇴율은 1.4%, 실업

고생 중퇴율은 5.0%로서, 실업고생의 중퇴율이 무려 중학생의 5.5배, 일반고생의 약 3.6배에 이르며, 일반고생의 중퇴율은 중학생의 약 1.6배이다.

<표 II-2> 교급별 중퇴자 분포(2001년)

	중퇴자수	중퇴율	비율
중학교	17,270	0.9%	25.8%
일반고	17,437	1.4%	26.0%
실업고	32,289	5.0%	48.2%
계	66,996	1.8%	100%

다. 교급별 · 중퇴원인별 중퇴자 분포(2001년)

교급별로 중퇴원인을 살펴보면, 중학교 중퇴자의 경우 '유학·이민'이 3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이 31.7%, '가정사정'이 22.3%로 나타났다. 일반고 중퇴자 중에서는 '가정사정'이 가장 많은 34.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이 29.7%, '유학·이민'이 21.7%의 순이며, 실업고 중퇴자 중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이 4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정사정'이 34.7%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사정, 품행, 학교생활 부적응, 기타로 인하여 중퇴하는 '순수중퇴집단'의 비율이 실업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자녀가 중학생일 경우 '유학·이민'의 선택은 이제 소수의 상류층의 선택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실감하고 있는 적지 않은 중산층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유학·이민'은 부모가 선택하는 자발적인 학교중퇴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가정사정은 가족내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으로 인한 방임, 학대, 과잉보호, 가출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일반고의 경우에는 부모의 과잉보호 유형이, 실업고의 경우에는 부모의 방임·학대 유형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생활 부적응은 교내외에서의 비행이나 범죄, 결석일수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이나 자퇴가 여기에 해당되며, 실업고에서 이러한 현상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3> 교급별 · 중퇴원인별 중퇴자 분포(2001년)

중퇴원인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중퇴자 수	비율	중퇴자 수	비율	중퇴자 수	비율
순수 중퇴 집단	소계	10,828	62.7%	12,514	71.8%	31,251	96.8%
	가정사정	3,852	22.3%	6,066	34.8%	11,199	34.7%
	품행	428	2.5%	325	1.9%	2,015	6.2%
	학교생활 부적응	5,475	31.7%	5,180	29.7%	15,522	48.1%
	기타	1,073	6.2%	943	5.4%	2,515	7.8%
	사망	287	1.7%	286	1.6%	319	1.0%
질병		338	2.0%	494	2.8%	339	1.0%
검정고시		52	0.3%	360	2.1%	88	0.3%
유학 · 이민		5,765	33.4%	3,783	21.7%	292	0.9%
합계		17,270	100%	17,437	100%	32,289	100%

라. 교급별 · 성별 중퇴자 분포(2001년)

교급별로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한데 비해, 일반고와 실업고의 경우 남녀의 구성비가 6 : 4 정도로 남자가 여자보다 2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교급별 · 성별 중퇴자 분포(2001년)

성별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계	
	중퇴자 수	비율	중퇴자 수	비율	중퇴자 수	비율	중퇴자 수	비율
남자	8,838	51%	10,347	59%	19,527	60%	38,712	58%
여자	8,432	49%	7,090	41%	12,762	40%	28,284	42%
계	17,270	100%	17,437	100%	32,289	100%	66,996	100%

마. 교급별 · 지역규모별 중퇴자 분포(2001년)

교급별로 지역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대도시가 59%, 중소도시가 36%, 농어촌이 5%이고, 일반고의 경우 대도시가 54%, 중소도시가

29%, 농어촌이 16%, 실업고의 경우 대도시가 48%, 중소도시가 29%, 농어촌이 23%로 각각 나타났다. 모든 교급에서 대도시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대도시의 집중현상이 중학교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고, 실업고의 순이다.

<표 II-5> 교급별 · 지역규모별 중퇴자 분포(2001년)

지역별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계	
	중퇴자 수	비율	중퇴자 수	비율	중퇴자 수	비율	중퇴자 수	비율
대도시	10,113	59%	9,451	54%	15,581	48%	35,145	52%
중소도시	6,267	36%	5,135	29%	9,378	29%	20,780	31%
농어촌	890	5%	2,851	16%	7,330	23%	11,071	17%
계	17,270	100%	17,437	100%	32,289	100%	66,996	100%

바. 교급별 · 학년별 중퇴자 분포(2001년)

중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퇴율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가장 높은 정점에 이른 뒤,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퇴율이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시기에 중퇴율이 가장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고 1학년으로 진학할 시에는 0.7%, 실업고 1학년으로 진학할 시에는 약 7%나 증가하였다. 또한, 실업고 1학년과 2학년의 중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6> 교급별 · 학년별 중퇴자 분포(2001년)

학년별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중퇴자 수	중퇴율	중퇴자 수	중퇴율	중퇴자 수	중퇴율
1학년	4,073	0.66%	7,769	1.87%	17,028	8.13%
2학년	6,087	1.00%	7,142	1.76%	11,531	5.64%
3학년	7,110	1.17%	2,526	0.58%	3,730	1.57%

중학교에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중퇴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록 사춘기적인 반항과 저항으로 인해 학교와 가정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1학년의 중퇴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와는 다른 본격적인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퇴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저학년의 시기에 이미 학교중퇴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중퇴를 하여 남아있는 학생들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학년이 될수록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학교 안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며, 가능한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3. 정규학교로부터의 이탈 :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제도화된 진로거점으로서의 정규학교로부터 왜 이탈하는가? 학업중단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던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학업중단현상이 한 두가지 요인들이 짧은 시간동안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기보다는, 학생,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어진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구자경 외, 2001; 서우석 외, 2001; 이경립, 1999; 조아미, 2002; 조영승 외, 2001; 황창순, 1996; Goldschmidt & Wang, 1999; Rumberger, 1995).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중퇴예측모델을 검증하였던 양적 연구들(Bryk & Thum, 1989; 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Rumberger, 1983)과 특정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중퇴과정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추구했던 질적 연구들(Fine, 1991; Trueba, Spindler, & Spindler, 1989)에 의해 수행되었다.

여기에서는 학업중단관련 요인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학교와 교육제도의 범위를 넘어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변화의 특성을 다루어보고자 하며,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노동시장 참여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거시적 차원

1) 학벌주의와 입시위주 교육제도

한국사회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벌주의이다. 학벌주의는 학력주의와는 다르다. 학력주의는 학교교육의 능력주의 실현에 대한 신뢰와 그 결과로서의 학력이 갖는 기능적 효용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정당화된 신념체계이다(김부태, 1997) 이와는 달리 학벌주의는 특정한 학교의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획득하거나 지속시키는데 서로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또 그러한 학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그러한 관행을 비판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도 가능하다면 그러한 폐쇄적인 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동춘, 2001).

해방이후 근대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자녀교육을 통한 지위상승을 바라는 '부모의 교육열'이라는 외피속에서 공고하게 굳어졌으며, 아직까지도 여전히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벌은 일단 한번 취득되면 평생토록 지속되며, 이후의 어떤 다른 평가에 의해서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학벌은 사실상 대학입시시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육은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며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구분만이 존재할 뿐이다.(조한혜정, 2000)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학벌주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의 대입시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무시하고 오로지 지적 능력만을 평가하며,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에 한 번 실시되는 평가를 통해 성패가 결정되며, 이렇게 해서 획득한 학벌은 평생동안 따라다니며, 쉽게 반복되기 어렵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오로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는 것에 가장 큰 교육적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속에서 공교육은 두가지 측면에서 학생들

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먼저 ‘공부 잘하는 아이’로부터는 높은 성적을 얻는데 있어서 사교육보다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학교이외에 학원수강이나 개인교습을 하고 있으며, 높은 성적을 받는데 있어서 학교교육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차별과 낙인을 받으며, 전인교육을 외면하는 학교로부터 소외된 채, 점차 학교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2)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문화

1970-80년대에 중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무시험 추천배정과 평준화에 의해 이질적인 학력집단으로 학교가 구성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교육과정 제도’와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와 교실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획일화되고 자율성이 없는 구조가 고착되었다(김영화, 2001).

또한 사회변화와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학교교칙과 체벌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학교내의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는 뜻있는 교사들의 개혁적인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제시대의 잔재인 이러한 학교내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문화는 신세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급격하게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족제와 가부장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권리의 신장이라는 사회적 현실 앞에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여성의 성평등적인 의식은 증가되어 가지만,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은 이혼율의 급증과 양육의 방임이라는 사회변화를 낳고 있다.

또한 자녀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사회적 현실에서 이혼

은 그 자녀에게 과거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장의 실직, 빈곤 등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은 가족내 기능적 결손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나. 미시적 차원

1) 개인적 요인

기존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으로 주로 다루었던 것은 성이다. 미국의 국립교육통계센터에 의하면 여자와 남자 모두 비슷한 비율로 학교를 중퇴한다고 한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98). 그런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나 높았다(Hahn & Danzberger, 1987). 그리고 남자 중퇴자의 25%가 학교보다 일을 선택하였다고 말하는 반면, 여자 중퇴자의 단지 10%만이 이러한 이유로 중퇴하였다고 (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한편, 여자들이 결혼이나 임신으로 인하여 중퇴하는 경우는 남자의 약 두 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다음으로 다루어졌던 개인적 요인은 인종·민족에 관한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흑인, 히스패닉(Hispanics), 원주민의 중퇴율이 백인과 아시아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cMillen, Kaufman, Hausken, & Bradby, 1993).

2) 가족관련 요인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미국사회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온 요인은 가족관련 요인이다. 기존의 중퇴관련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적 지원의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를 밝히는데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연구자들이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를 학업중단과 거의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일시의 이유는 미국사회에서는 정규학교에서 학교성적이

낮을 경우, 유급될 가능성이 높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 유급의 경험은 곧 중퇴의 전조로 간주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는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별다른 선별장치없이 자동진급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습부진이 곧 중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미국사회보다 낮다.

가족관련 요인을 다루는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족구조와 같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연구들은 일관되게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으로 측정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중단행위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Bryk & Thum, 1989; 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Rumberger, 1983). 연구들은 또한 결혼가족의 학생들이 중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도 증명하였다(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Rumberger, 1983).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는 자식의 양육방법과 부모의 학교공부에 대한 관여정도에 관심을 두었다. 몇몇 연구들은 부모들이 정서적인 지지와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동시에 자녀들의 행동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가족에서 성장한 학생들일수록 학교에서 성취도가 높고, 심리적 성숙도가 더욱 발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Astone & McLanahan, 1991). 그리고 부모가 학생들의 학교공부에 많이 관여하면 할수록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성취도는 올라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도 있다(Astone & McLanahan, 1991; Fehrman, Keith, & Reimers, 1987).

3) 학교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은 우리사회에서의 몇몇 양적, 질적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조혜정, 2001; 박창남 외, 2001). 미국사회에서 학교관련 요인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은 학교내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비행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한국사회에서 학교관련요인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은 주로 학교의 구조적·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들은 학교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낳고 있는 비민주적 학교운영, 비현실적인

학교교칙, 성적에 의한 교사의 차별, 학습부진학생의 배제 등의 중퇴요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오히려 구조적으로 학생들을 학교밖으로 내몰고 배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중퇴에 관한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개인의 경험들이 학업중단의 가장 강력한 전조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일련의 연구들은 중퇴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학업성취, 소란행위, 잦은 결석,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유급의 반복 등을 경험하기 쉽다고 한다(Barrington & Hendricks, 1989; 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학교의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질적이고 해석적인 연구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학교가 어떻게 학업중단을 낳는 조건들을 만들고, 학업중단을 촉진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Delgado-Gaitan, 1988; Fine, 1991)

이 연구들은 주로 학생의 학교성적으로 측정되어지는 학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려고 하였다. 몇몇 연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학생구성(student composition)요인이 개별 학생의 성취수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수준의 평균적인 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Lee & Bryk, 1989; Lee & Smith, 1993). 그리고 학교의 유형(공립, 사립), 규모, 자원 등과 같은 학교의 구조적 특성은 비록 그 효과의 크기가 논란으로 남아있지만, 평균적인 학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yk, Lee, & Holland, 1993). 그리고 학교교칙, 의사결정, 관례와 같은 학교조직과 학교분위기도 학교의 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Bryk, 1989; Lee & Smith, 1993).

4) 노동시장 참여 요인

이외에 학업중단관련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노동참여이다. 한 연구(McNeal, 1997)에 의하면 노동시장이 학생들을 학교밖으로 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저숙련, 저임금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고, 실업률이 매우 낮을 때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한다(Bickel, 1989). 또

한 D'Amico(1984)에 의하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들은 전혀 일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중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 일하는 학생들은 전혀 일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중퇴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할 시간과 힘이 적기 때문에 더욱 중퇴하기가 쉽고, 일주일에 20시간 미만 일하는 학생들은 인내력, 믿음직함과 같은 중요한 특성을 배운 뒤, 학교수업으로 연결짓기 때문에 오히려 중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4. 정규학교로부터의 이탈 이후 I : 불완전 근로 경험

정규학교로부터 이탈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파트타임 형태의 불완전 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 대한 불만이 가출로 이어지고, 다시 학업중단으로 이어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라면, 당연히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찾아나설 것이다. 그리고, 생계문제가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가 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전일제 근로(full time job) 형태의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손쉽게 주어지는 파트타임 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찾아나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규학교에서의 교과공부에 흥미를 잃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도 새로운 삶의 형태로 파트타임과 같은 불완전 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찾아나설 가능성이 높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직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제도화된 진로 트랙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정규학교로부터 이탈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파트타임 형태의 불완전 근로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 청소년 불완전 근로의 개념

불완전 근로의 개념은 파트타임이라 불리우는 형태의 근로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전일제 근로(full time job)와 대비되는 시간제 근로를 지칭하는

말이며(ILO), 통상, 임시적, 일시적 고용형태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근로의 개념을 고용의 한정적 안정성(임시직 혹은 영구직)의 차원과 시간성(시간제 혹은 전일근무)의 차원으로 교차하여 구분하여 보면, 임시적이면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 임시적이면서 전일 근무하는 형태, 상대적으로 영구적이면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 상대적으로 영구적이면서 전일 근무하는 형태의 네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이 때, 상대적으로 영구적이면서 전일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안정된 직업활동을 나타내는 것인 반면,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불완전 근로는 임시적이면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임시적이면서 전일근무하는 형태도 불완전 근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 부르는 개념은 주업이 아닌 부업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재학생 청소년이 불완전 근로에 종사하게 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라 불러도 무방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이 불완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개념보다는 파트타임 근로라 지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통상,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파트타임의 근로형태를 취하므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과 파트타임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통상 불완전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목적은 돈을 벌기위한 것이거나, 취업준비의 일환으로 사회경험을 쌓기 위한 것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불완전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소비지향형과 생계지향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청소년 불완전 근로의 실태 및 특징

현재, 국내에서,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왔으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불완전 근로의 실태 및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재학생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 경험의 실태 및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 경

험의 실태 및 특징을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

그간에 이뤄져 왔던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 경험의 실태 및 특징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서울 YMCA 청소년진학 상담실, 2000;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2000; 인권운동사랑방, 2002;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2002; 이철위 외, 2000, 이광호 외, 2001)

첫째, 한국의 청소년 불완전 근로는 대부분 전문적이지 않은 단순근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약간의 교육이나 지침만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불완전 근로의 형태는 장래의 취업과의 연관성의 측면에서 취업준비의 개념으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근로인 점이 특징이다.

둘째, 비교육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단지 돌리기, 신문배달 및 음식점 서빙과 오토바이 배달,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당수는 단란주점 등의 불건전한 향락산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안내 등의 교육적인 업종의 불완전 근로형태는 아주 드물다.

셋째,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구타, 성희롱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청소년의 불완전 근로는 대부분 낮은 임금 수준을 나타낸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보다 보수를 적게 받는 학생이 상당수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인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15세 미만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최저연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단 13세 이상 15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하면 취업이 가능), 취업이 허용되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18세 미만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근로환

경에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음반판매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가 없으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업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청소년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필요한 치료 및 비용부담을 고용주가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라 할 지라도, 성인근로자 최저임금액의 90%인 최저임금(2,048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한국의 재학생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는 이러한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과는 상당한 괴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청소년 불완전 근로는 장래의 취업을 위해 미리 직업활동을 경험하는 취업준비의 개념에서는 벗어나 있으며, 부모나 교사 등의 어른들의 인식도 그다지 좋지 않은 실정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한국의 재학생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 경험의 특징들이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불완전 근로 종사 경험이 재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훨씬 더 비교육적인 업종에,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훨씬 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된다.

5. 정규학교로부터의 이탈 이후 II

: 대안적 삶의 선택과 향후 진로설정

정규학교로부터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자신의 대안적 삶을 선택하고, 선택한 대안적 삶의 바탕위에서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한다.

학업을 중단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설정하는 진로는 크게 진학지향형과 취업지향형, 그리고 진학지향도 취업지향도 아닌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만을 하면서 지내겠다는 방임형의 세 유형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유형의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 학업중단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업중단 이후의 대안적 삶은 크게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선도보호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 소년원 등 기관에 수용된 상태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준비하는 유형과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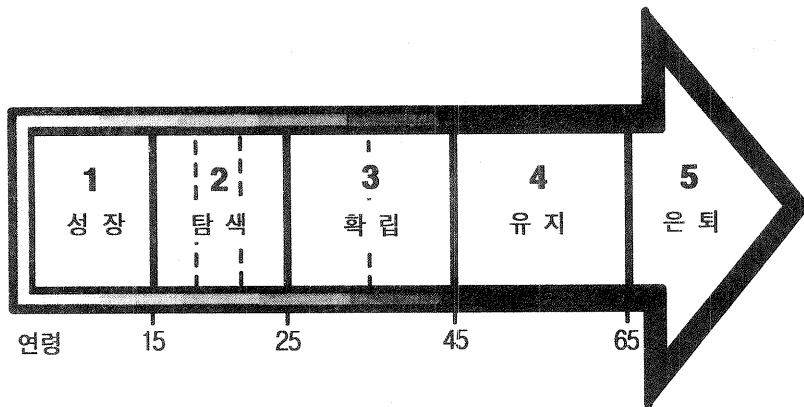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정규학교로부터의 이탈 이후, 대안적 삶을 선택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진로발달단계에서 청소년 연령대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대안적 삶을 선택하고, 진로를 설정해 가는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진로발달단계에서의 청소년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이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서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진로를 재설정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진로발달단계(career development stage)란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진로발달의 과정에 연령별로 구분되는 각각의 단계가 있음을 가정·지칭하는 말이다.(Ginzberg의 진

로발달이론, Super의 진로 및 생애발달이론, Tiedeman과 O'Hara의 진로발달이론, Tuckman의 진로발달이론 등)

대표적인 학자인 Super는 개인의 진로발달단계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성장기(growth stage), 탐색기(exploration stage),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유지기(maintenance stage), 은퇴 혹은 쇠퇴기(decline stage)의 5단계로 구분하고, 성장기에서는 현실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초기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점차 적성과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고, 탐색기에서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직업체험활동, 여가활동 등을 통하여 점차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닫게 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예비적으로 탐색하게 되고, 확립기에는 직업탐색기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유지기에는 확립기를 통해 확보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은퇴기에는 확립·유지된 직업으로부터 은퇴하여 다른 활동을 탐색하는 시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맹영임 외, 2001)



<그림 II-2> Super의 진로발달단계(맹영임 외, 2001)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단계를 가정해 보면, 대체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인식하는 진로인식(career awareness)단계, 중학교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단계,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선택·준비하는 진로준비

(career preparation)단계, 대학교 시기는 진로전문화(career specialization)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이광호 외, 2000)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시기를 말하므로, 진로발달단계에서의 청소년의 위치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대안적 삶과 진로설정의 유형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의 유형구분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orrow(1986)는 학업중단자를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학교로부터 쫓겨난(pushouts) 유형', '학교와 더 이상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의미하는 비제휴형(the disaffiliated)', '학교프로그램을 완전히 마치는데 실패하는 교육적 사망자(educational mortalities) 유형', '가정내의 사회화가 학교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능력있는 학업중단자(capable dropouts) 유형', '보통 동일한 학년의 기간내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중퇴자인 중지자(stopouts)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조혜정(1996)은 학업중단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학교의 교육전체를 부질없다고 판단하고 학생 자신이 학교가기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유형은 그런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학교에 가기 싫어서 집에 있는 '부등교'의 경우인데, 부등교가 장기화되어 퇴학을 당하여 중퇴자가 되는 유형이다.

또한 이숙영 외(1997)는 중퇴이후 중퇴자의 욕구와 상태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중퇴청소년을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눈 뒤, 적응형을 다시 진학형, 건전직장 취업형, 취업준비형으로 나누고, 부적응형은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 중, 요양 중, 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가출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나누었다.

<표 II-7>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유형 - 이숙영 외(1997)

적응형		진학형	· 복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에서 수학 · 학습의욕 상실 및 기술의 부족으로 부적응하기도 함 · 대인관계 문제, 생활적응상의 문제를 가짐
		건전직장 취업형	·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생활정착 · 진학준비를 병행하기도 함
		취업 준비형	· 사설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기술 습득을 하고 있음 · 일부는 적응상에 문제를 겪고 있음
부적응형	보 호 및 관리 체 제에 소속된 청소년	소년원 수용	· 범죄 연루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 중	· 범죄연루 후 보호관찰 중 · 검정고시 등을 통한 진학준비 병행 ·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 병행
		요양중	· 정신질환, 신체질환으로 병원, 요양기관에 수용됨 · 진학, 진로지도가 부재함
	보 호 및 관리 체 제에 소속되 지 않은 청소년	방치된 비행 청소년	· 중퇴 후에 진학, 취업준비에 참여하지 않음 · 다양한 비행-폭력, 약물오남용 등에 참여함
		유흥업소 취업	· 단란주점, 술집 등에 취업 중 · 일부는 검정고시 학원, 기술학원에서 진학 및 취업준비 중
		가출 청소년	· 가출하여 소재가 불분명함 · 중국집, 카페 등에 취업하거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취업 중 · 비행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준비가 미흡함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	·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집안에 방치됨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준비가 미흡함 ·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증가됨

박창남 외(2001)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학업중단자를 분류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중퇴의 원인에 따른 분류로서, 획일적이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거부하는 '적극형', 학습부진과 낮은 진로의식으로 인하여 중퇴하는 '소극형', 비행과 그에 따른 낙인과 징계로 인해 중퇴하는 '강제형', 가정불화와 가족내 폭력에 의해 가출과 동반하여 중퇴하는 '가출동반형', 유학이나 이민, 그리고

유리한 내신성적을 위해 검정고시를 보고자 중퇴하는 '수월추구형'으로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중퇴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유형을 나누었는데, 유형별 특징과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유형 - 박창남 외(2001)

유형		특징	지원서비스	주요 관련부처
정착형	진학형	· 대안학교 입학 · 검정고시 · 복교	· 대안학교 · 복교후 상담관리	교육인적자원부
	취업형	· 취업 · 대인관계 문제	· 취업알선 · 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부
	직업 훈련형	· 직업훈련 · 훈련과정 부적응 가능성	· 직업훈련기관 소개 · 학력인정 · 자격증 연계 · 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비정착형	시설 수용형	· 소년원 직업교육 · 소년원 진학교육	· 학력인정 · 자격증 연계 · 상담 및 진로지도 · 가족지원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방치형	· 가출동반 · 가족결손	· 청소년 쉼터 · 학력인정 · 자격증 연계 · 상담 및 진로지도	문화관광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NGO

진학형은 학교는 나왔지만, 학업은 계속하고 싶어하는 유형으로서 대안학교로 보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인이 중퇴를 후회하고 학교로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복교시킨다.

취업형은 중퇴 후 취업을 원하는 유형으로서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직업훈련형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유형으로서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여 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때 훈련과정에서도 부적응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시설수용형은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아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유형으로서 직업교육이나 진학을 희망할 수 있다. 직업교육이나 교과교육의 실시뿐만 아니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학력인정과 자격증 수여가 필요하며, 역시 범죄를 경험한 집단이므로 지속적인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치형은 가출을 동반하여 학업을 중단한 유형으로서 주로 청소년쉼터나 선도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집과 같은 숙식장소가 필요하며, 여기에 머무르면서 교육과 직업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가출경험이 있고 비행성향이 있는 집단이므로 전문적인 상담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관련 유형은 크게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걷고 있는 대안적 삶의 형태와 향후 진로설정 유형의 두 차원으로 구분한 후, 이 두 차원을 교차시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학업을 중단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유형은 크게 진학지향형, 취업지향형, 그리고 진학도 취업도 아닌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만을 하면서 지내는 방임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진로 설정을 성취하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대안적 삶의 유형은 크게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선도보호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 소년원 등 기관에 수용된 상태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준비하는 유형과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이러한 향후 진로설정과 대안적 삶의 형태의 하위 유형을 교차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이 나올 수 있다. A 유형은 학업중단 이후 기관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이거나, 소년원 학교 등의 진학반에서 진학을 위해 애쓰는 청소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B 유형은 학업중단 이후 기관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획득하여 취업에 애쓰는 청소년이거나, 소년원 학교 등의 취업준비반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C 유형은 현재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의 학업중단 청소년

년이지만,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진학이나 취업 등의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 등의 불완전 근로에 종사하며, 지내겠다는 청소년들이 해당된다. D 유형은 학업중단 이후 일정한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거나 독학 등의 방법을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E 유형은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을 말하며, F 유형은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지내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칭한다.

<표 II-9>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유형 구분

	진학지향형	취업지향형	방임형
기관수용 학업중단	A	B	C
기관비수용 학업중단	D	E	F

6.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현황

현재 한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지원 정책의 현황은 어떠한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는 불완전 근로 보호,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분야별로 기존의 유사정책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업중단 청소년 불완전 근로 보호 관련 정책

청소년들의 일(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의 부재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생청소년보다 훨씬 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에 적극적

이다. 고용시간도 길고, 성인들의 일의 업무와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비해,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제를 밀도는 경우가 많고, 일의 과정에서도 폭행이나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노동참여를 가능한 억제하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미 상당부분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청소년노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1) 취업의 최저연령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취업의 최저연령을 정하고 있다. 취업의 최저연령을 정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성장과 교육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취업의 최저연령을 정하지 않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무분별한 노동참여로 인하여 노동착취와 학대로 인해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교육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전세계에서 몇몇 빈곤국가에서의 아동노동의 착취와 학대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막기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을 만들어 세계 각 국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각 국에서 비준할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각 국의 국민들은 이 협약을 지켜야 한다.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준한 바 있다. 동협약 제2조에 의하면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며, 동협약 제7조에 의하면 국내법령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참여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노동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의무교육 종료연령은 15세이다. 따라서 기존의 취업 최저연령인 15세 미만은 16세 미만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취직인허증' 제도의 실효성

1998년부터 2002년 7월말까지 노동부가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실적은 모두

13건에 불과하며, 2001년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응답자가 784명으로 전체 972명의 80.7%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청 관내에서 1999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직인허증 발급실적이 적은 이유는 첫째,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자인 13세, 14세의 아동들이 이 제도를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알더라도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13세, 14세의 아동들이 참여하는 노동의 형태는 대부분 2-3시간 안에 끝나는 전단지 배포와 같은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실효성을 상실한 취직인허증 제도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13세, 14세 아동 노동의 대부분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결국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3) 노동보호의 최고연령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으로서 일을 할 경우 도덕상·보건성 해가 되고 위험한 업소 종사금지,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등의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연령이 만18세 미만으로 되어있다. 만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데, 각종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노동참여율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보다 낮지 않다. 오히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음성적으로 사실상 취업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노동보호는 더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만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4)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정하고 있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정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자칫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이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에 준용될 우려가 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보다 연령이 낮으므로 근로시간이 더 적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차별화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일하는 영역 중에는 교대제가 도입된 곳도 있다. 이러한 교대제가 운영되는 작업장에서는 일하는 날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의 법률에서처럼 근로시간이 '일' 단위, '주' 단위로 규정되어있는 상황에서는 교대제 근로의 많은 부분이 불법노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교대제와 같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이 운영되는 추세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5) 야업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에 해당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본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사이의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휴일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17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는 별도로 야간근로금지와 휴일근로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교대제가 운영될 경우 실제로 아동·청소년들이 오후 10시를 넘겨 야간근로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따라서 17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에서 교대제가 운영될 경우 야간근로금지시간을 보다 완화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상담 관련 정책

1) 청소년상담정책(문화관광부)

가) 개요

청소년상담은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상담실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해결과 예방 및 성장·발달의 촉진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107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을 비롯하여 각종 심리검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상담과 심리검사는 주로 학부모가 청소년자녀의 등교거부 혹은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자녀의 상담을 의뢰하여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집단상담은 상담실내에서 실시되기도 하고, 전문상담자가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전화상담과 사이버 상담은 직접 상담실을 방문하지 않고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매우 활발하다.

이 외에 지역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실과 연계사업을 벌임으로써 각종 워크숍과 사례연구모임 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지역상담실의 상담능력을 함양하고 상담기법을 공유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상담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문제와 상담에 관한 연구출판활동을 하고 있다(구자경, 2001:59).

나) 사업실적

2000년도 전국 16개 시·도 및 101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의 총 상담건수는 630,20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집단상담 건수가 415,545건으로 전체 상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별 상담횟수의 차이는 260,284:369,923으로 남 41%, 여자 59%로 여자의 경우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데 더 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203,912건으로 가장 높고, 중학생이 175,739건으로 다음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상담은 중고생에 의해 379,651건이 이루어져 전체 상담의 60%이상을 차지한다.

상담내용별로 보면, 성격과 정체감 문제가 각각 110,559건과 100,949건으로 가장 우선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진로문제와 성문제 및 정서문제와 친구관계 등에 관한 상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내용별 상담실적 (2000년)

구분	학업	성	진로	성격	정서	친구 관계	정체감	가정 문제	중독 비행	가출	도박	폭력	학교 부적응	기타	단순정 보제공	계
개인상 담	3470	1163	8293	10801	4206	3112	2470	7350	1588	1536	1782	2337	3538	3616	740	56,002
집단상 담	14310	27503	40676	52950	54518	48584	94269	32962	6775	1951	308	1897	12579	26208	55	415,545
심리검 사	3662	376	16716	40819	1816	1064	3307	571	97	96	39	48	489	509	236	69,845
전화상 담	2563	17434	5328	5313	2185	3605	703	8312	1165	3242	1077	1257	2875	4707	4446	64,212
사이버 상담	796	16868	1184	676	426	1967	195	585	63	78	30	278	220	689	548	24,603
합계	24,801	63,344	72,197	110,559	63,151	58,332	100,944	49,780	9,688	6,903	3,236	5,817	19,701	35,729	6,025	630,207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대외협력부 자료제공)

다) 중퇴자 관련 상담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 복학생 및 징계대상 청소년 등 중퇴자와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담방법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편입생과 복학생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아발견의 과정을 갖도록 해 주며,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갖게 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돕는다.

지역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교육청 및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기간과 시간 등을 정해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벌이며, 그 외 사회봉사활동, 인간관계훈련, 심리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학교의 위탁을 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하여 주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로부터 특별교육 대상자 및 복학생을 공식절차를 통해 상담실로 의뢰 받아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상담이 완료되면 집단상담의 경우 차후 개인상담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상담소견서 등이 학교로 발송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대상이 복교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 등 중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이므로 프로그램 구성이 주로 원만한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충북청소년종합상담실의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은 복교희망 청소년과 징계대상 청소년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복교희망 청소년의 경우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탐색 및 비행의 원인탐색을 중심으로 학교 적응과 동기 학업욕구를 검토하는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징계청소년의 경우, 비행의 원인 및 내담자의 주변 정보를 탐색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한편, “특별상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부모도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부모상담 이외에 봉사활동 및 직업체험, 캠프 및 추수지도가 일정기간과 회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라) 문제점

청소년상담은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고 1991년 시작된 이래 1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청소년 상담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상담실 마련, 상담인력의 확충 및 보다 전문화된 상담기법의 개발 등 청소년 상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예방과 중도탈락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지역 청소년종합상담실이 각종 사업과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현장의 수요에 비추어 볼 때, 그 활동의 규모가 적으며 전체적 계획과 연계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직업훈련 관련 정책

1) 기능사 양성훈련(노동부)

가) 개요

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직업훈련중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훈련으로는 기능사 양성훈련이 있다. 기능사 양성훈련은 가공생산 및 기계설비 등의 설치, 보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식·기능과 적응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다. 한국산업공단 소속의 전국 21개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되며, 훈련기간은 일반과정(주간)은 1년, 특별과정(야간)은 3개월 혹은 6개월 과정으로 개설된다. 훈련수준은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수준이며, 교과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11> 기능사 양성훈련 교과편성

구분	계	이론교과		실기교과
		공통	전공(이론)	전공
교과편성 (비율)	1,400 (100%)	140 (10%)	280 (20%)	980 (70%)

<표 II-12> 기능사 양성훈련 훈련생 모집기준

	기능사 양성훈련 일반과정	기능사 양성훈련 특별과정
훈련기간	1년(주간)	3월 또는 6월(야간)
입학대상	비진학청소년, 여성, 청년, 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서 무기능 실업자 등
학력	- 일반지원자 : 제한없음 - 위탁생 :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이수자로서 학교장이 위탁하는 재학생	제한없음
연령	- 병역미필자 : 만15세 이상인자 - 병역필자 및 면제자 (여성포함) 제한없음	제한없음
전형방법	면접	면접 또는 해당서류

본 기능사 양성훈련 참여자에게는 교육훈련비용 전액 국가부담, 기숙사 무료 제공(희망자에 한함), 성적우수자 및 모범생에게 각종 장학금 지급, 수료시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 교육훈련 과정별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용이, 교육훈련기간 중 군입영기일 연기,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직업전문학교 1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 수료(예정)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

자로 기능대학이 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지원자 가산점 혜택부여 등과 같은 특전이 있다.

기능사 양성훈련에서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의 세부 훈련직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13>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 일반과정 훈련직종

과 정	공과 : 직종
계	82개 직종
소계	52개 직종
기능사 1년	○ 정밀기계가공: CNC선반, 머시닝센터, 생산가공, NC기계, 컴퓨터 응용기계, 전산응용금형, 메카트로닉스 ○ 금 형 :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 생산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가공, 시스템제어 ○ 산업설비 : 공업배관, 건축배관, 보일러, 전기용접, 특수용접, 건축환경설비, 자동화용접,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플랜트설비 ○ 전기제어 :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계측제어 ○ 전자통신: 전자기기, 공업전자, 정보통신시스템, 전자통신 ○ 인 쇄 : 스크린인쇄, 컴퓨터출판디자인 ○ 금 속 : 주조, 정밀주조 ○ 냉동기계 : 고압가스냉동기계 ○ 카일렉트로닉스 : 자동차정비, 카일렉트로닉스 ○ 기관정비 : 선박기관정비 ○ 귀금속공예 : 귀금속가공, 보석가공 ○ 건축시공 : 철근콘크리트 ○ 산업디자인 : 컴퓨터산업디자인, 멀티미디어제작, 컴퓨터 애니메이션 ○ 모델링 : 제품응용모델링 ○ 재료시험 : NDE기기운용 ○ 표면처리 : 전기도금, 특수도금, 반도체도금 ○ 도 장 : 금속도장, 건축도장

<표 II-14>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 특별과정 훈련직종

과 정	공과 : 직종
소계	30개 직종
기능사 6개월	○ 정밀기계가공: CNC선반, 머시닝센터, NC기계, 컴퓨터 응용기계, 전산응용금형, 생산가공 ○ 산업설비 : 건축배관, 보일러, 전기용접, 특수용접, 건축환경설비 ○ 생산자동화 : CAD,CAM, 시스템제어 ○ 전기제어 :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계측제어, 동력배선 ○ 전자통신: 전자기기, 공업전자, 정보통신시스템 ○ 출판인쇄 : 컴퓨터출판디자인 ○ 카일렉트로닉스 : 자동차정비, 카일렉트로닉스 ○ 기관정비 : 건설기계기관정비 ○ 귀금속공예 : 귀금속가공 ○ 산업디자인 : 컴퓨터산업디자인, 멀티미디어 ○ 모델링 : 제품응용모델링 ○ 재료응용 : 정밀주조

나. 실적

2001년도를 기준으로 기능사 양성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9,820명으로 이중에서 일반과정은 7,570명이고, 특별과정은 2,250명이다.

<표 II-14>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 참여인원

	기능사 양성훈련 일반과정	기능사 양성훈련 특별과정	계
합계	7,570명	2,250명	9,820명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기능사 양성훈련 일반 과정에는 8,400백만원, 특별과정에는 2,250백만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표 II-15>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기능사 양성훈련 일반과정	8,370	8,400
기능사 양성훈련 특별과정	3,760	2,250

2001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교위탁생의 규모가 전체 입학생의 약 49%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은 전체 입학생의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2001년 직업전문학교 입학생 학력별 현황

	정원	입학인원	고퇴	고교위탁생
합계	7,570	8,044	447(5.6%)	3,922(48.8%)
서울경인지역	2,130	2,352	126	1,379
충청지역	930	976	99	356
영남지역	2,880	2,979	116	1,654
호남지역	1,630	1,717	106	533

다. 문제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몇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훈련기간중에도 지속적인 진로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훈련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지가 상담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직업훈련시 운영하는 학급의 규모를 훨씬 소규모화하고, 알기 쉽도록 교육해야 한다.

2) 선도보호시설의 직업훈련(여성부)

가. 사업개요

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환경(가출·유혹·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청소년을 수용 보호하며 각종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원활한 사회재적응을 돕고 있다.

입소절차는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자로서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결과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소조치(선도보호조치)하는 경우와,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로서 소년부 판사가 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입소조치(보호처분)하는 경우, 경찰관서 등이 입소의뢰한 경우는 다른 입소자에 우선하여 입소조치(우선보호조치)하는 경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 숙식제공, 인성변화교육 및 생활지도, 진학·복학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직업교육 실시, 의료보호(1종) 수혜, 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지도와 상담 등 다양하다(보건복지부, 1999:4). 1996년도에는 17개소 선도보호시설에서 487명이 교육받아 이중 98명이 취직, 14.4%의 취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6년 이래로 선도보호시설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가출소녀들이 선도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가출청소년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도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선도보호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료 숙식제공 : 일정기간 시설에서 보호하며 기본적인 의식주 섭;스를 제공한다.

○ 인성변화 교육 및 생활지도 : 전문상담, 정신심리개발, 임상치료 등의 전문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정기상담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입소자의 문화 및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진학과정 운영 : 개개인의 진학 및 복학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직업교육 실시 : 직업훈련은 취업이 용이한 과목을 시설별로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설내 적당한 교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훈련과목이 부적절하거나 성과가 미진한 과목은 폐지·조정한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교재·실습재료·교사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의료보호 적용 : 의료보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를 적용하고 있다.

○ 건강진단 실시 : 입소자들에게 의료보호자격을 부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2001년 6월 현재 전국의 선도보호시설은 23개이며, 이 가운데 6개월이상 1년까지 수용 보호하는 중장기 선도보호시설은 서울의 은성원과 한국여성의 집을 비롯하여 전국에 10개 시설이 있다. 13개의 일시 선도보호시설은 청소년의 성매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의 일환으로 기존의 비법인 사회복지 시설이 법인화시설로 편입된 시설들로 대부분 2001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다. 총 23개 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673명으로 전국의 성매매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현재 수용된 인원은 466명으로 정원의 7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시설의 효과적 운영문제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1년 상반기 전체 입소자 976명 가운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719명으로 전체의 74%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자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11개 선도보호시설에 재정 지원된 총 예산은 15억5천2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설운영비가 12억 3백만원으로 77.5%에 해당하고, 시설개보수 및 기자재구입 등 기능보강비는 3억4천9백만원으로 2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대

한 재정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2001년도 예산은 총 20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대 대비하여 약 30% 증가하였으나, 재정 지원되는 시설은 총 11개 시설에서 21개 시설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보호시설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도 전국 21개 선도보호시설에 1,411명이 입소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시설 및 입소자 수가 거의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도 1년간 퇴소자는 837명이며, 이 가운데 귀가가 660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단퇴소 등의 기타사유가 122명이며, 취업으로 인한 퇴소는 47명으로 전체 퇴소자의 5.6%에 불과하다. 특히, 가출소녀 및 학업중단 청소년이 향락산업과 지속적인 가출상황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립능력을 길러주어야 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기능을 바탕으로 노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17> 교육 및 취업현황(단위 : 명)

연도	취업교육					자격증 취득	취업 자	진학 교육
	소계	미용	양재	PC관련	기타			
1999	865	316	191	272	86	66	73	161
2000	751	284	141	234	92	56	62	115
2001 (1-6월)	493	183	87	160	63	27	20	125

(출처 : 여성부 권익기획과 자료제공)

다. 문제점

위에서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경찰에 의해 적발된 성매매 여자청소년이나 쉼터에서의 일시보호가 종료되고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가출소녀가 선도보호시설에 의뢰되고 있다. 그러나 낙후된 시설과 딱딱한 분위기로 청소년들의 적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가출소녀의 경우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윤락녀로 낙인되는 문제가 있어 입소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선도보호시설은 시설, 입소조건 및 운영방식 등에서 총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에서는 미용, 양재, 제빵, 컴퓨터 등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III. 연구 방법

1.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방법 : 양적 설문조사

가. 표집들의 작성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대안학교(학력인정 학교/비인정 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선도보호시설 등의 청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학업중단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나 시설의 학업중단 청소년들(비진학 청소년 제외)이다.

그런데, 연구대상인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인 모집단은 존재하지만, 표집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목록이나 명부인 표집들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작성가능한 표집들부터 작성하였다.

우선,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 등 네 개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안학교, 쉼터,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기타 청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검색을 시도하였다. 검색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24개의 대안학교, 31개의 쉼터, 25개의 직업훈련기관, 12개의 소년원, 12개의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기관리스트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검색결과는 교육부의 대안학교 리스트 등 각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리스트를 총망라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기관이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대안학교, 쉼터,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기타 청소년보호시설의 수용

자들 가운데는 학업중단 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직업훈련기관의 위탁교육생의 경우), 비진학청소년들이 섞여 있어, 확보된 리스트에 나오는 기관의 전체 인원숫자만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따라서, 다음으로, 기관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원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104개의 확보된 리스트 각 기관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구두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대략적인 인원수를 파악하였다.

파악한 결과, 비진학청소년을 제외하고, 전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2,500-3,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기관별로는 대안학교에 26%정도, 직업훈련기관에 23%정도, 소년원에 39%정도, 쉼터에 7%정도, 기타 청소년보호기관에 5%정도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이 수치는 담당자에게 구두로 파악한 결과로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모집단의 실제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화를 통해 구두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담당자 자신이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지 못해 대략적인 추정치를 말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성가능한 최선의 표집틀임에는 틀림없다.)

나. 표집 및 조사방법

이러한 표집틀의 작성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3분의 1가량으로 추정되는 학업중단 청소년 1,000명을 목표로 표집에 임하였다. 그러나, 현재, 모집단의 각 요소들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무작위 방법에 의한, 확률표집의 원리는 적용할 수가 없다. 다만,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전체 인원수와 대안학교, 쉼터,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기타 청소년보호시설의 각 기관별 인원수의 규모는 대체적인 파악을 한 상태이므로,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가장 정교한 표집방법인 할당 표집(quota sampling)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집하였다.

우선, 표집 목표 표본수인 1,000명을, 대안학교, 쉼터, 직업훈련기관, 소년

원, 기타 청소년보호시설의 각 기관별로 파악된 학업중단 청소년 분포 비율에 맞게 나누어, 각 기관별로 추출될 전체적인 표집규모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대안학교, 쉼터,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기타 청소년보호시설의 각 기관별로 소속 하위기관 중에서 표집대상기관을 선발하였다. 각 기관별로 소속 하위기관 중에서 표집대상기관을 선발할 때는, 각 기관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질적 구성의 정도에 따라, 비교적 이질성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학교, 쉼터,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되도록 많은 소속 하위기관을 표집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상대적으로 이질적 구성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훈련기관과 소년원 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속하위기관을 표집대상기관으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소년원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교육 소년원과 직업교육 소년원의 비율이, 모집단 구성에 맞게, 6:4 혹은 7:3의 비율로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별로 설정된 기관별 표집규모를, 각 기관별 소속 하위기관중에서 표집대상기관으로 선발된 기관의 학업중단 청소년 숫자에 비례하게 할당하여, 임의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4개의 대안학교 중 23개의 대안학교에서, 31개의 쉼터 중 20개의 쉼터에서, 12개의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중 10개의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25개의 직업훈련기관 중 8개의 직업훈련기관에서, 그리고, 12개의 소년원 학교 중 3개의 소년원 학교에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목표표본 수인 1,000명 중에서 전체 828명이 최종적으로 표집, 조사되었는데, 그 중, 대안학교가 278명, 직업훈련기관이 174명, 쉼터가 53명, 소년원이 280명,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43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최종 표본으로 표집되었다.(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일부 소년원 학생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의 한계로 말미암아, 표집시에, 남녀가 같이 있는 소년원에서 표집을 하지 못하고, 여자만 있는 소년원 학교에서 표집이 실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쉬운 점이다.)

조사는 2003년 7월 8일에서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집단면접에 의한 자기보고식(self-reported) 설문조사의 형태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III-1> 학업중단 청소년 표집기관 리스트

대안학교	주소
지구촌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51
산마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366번지
동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18번지
두레자연고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화산7리 692-11번지
경기대명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22번지
공동체비전고	충남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75-1번지
세인고등학교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번지
푸른꿈고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65번지
양산성지고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77번지
한빛고등학교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1번지
경주화랑고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번지
간디학교	경남 산천군 신안면 외송리 122번지
원경고등학교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292번지
현산중학교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883-1번지
지평선중학교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99-1번지
성지송학중	전남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219-1번지
용정중학교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186번지
수도중학교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25
변산학교(진솔대안학교)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개화동 1065번지
하차작업장학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7가 57번지
꿈꾸는 아이들학교	서울시 관악구 신림 12동 748-35 (2층)
부천실업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390-5
한마음고등학교	충남 천안시 동면 장송리 418-1

센터	주소
서울YMCA 청소년 센터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50-2
서울시립 구로청소년센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58
서울시립 신림청소년센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 1428-12
부산광역시 청소년 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65-7
대구광역시 청소년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3가 202-2
광주광역시 청소년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7-5
대전광역시 청소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37-9대훈빌딩 3층
울산광역시 청소년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795-2
노원구 청소년센터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93-28
열린 청소년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8단지 동성상가 3층
안산 청소년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43-5번지 101호
우리들센터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20-7
카톨릭 수지의 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5-1번지
심산 소녀학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79-1
제주 청소년센터	제주도 제주시 연동 2303-3번지 3층
대구 YWCA 청소년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789-2
모퉁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14-11
김해 YMCA 청소년센터	경남 김해시 봉황동 404
용인 청소년센터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 2동 570-1
강남구 청소년센터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120-17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주소
시온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60번지 9호
청소년 미혼모쉼터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48-1
상록모자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70
루시모자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 2동 362-22
목포태화모자원	전남 목포시 용당2동 1077-2
기독교 가정복지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19
경주애가원	경북 경주시 구정동 65-1
다비다 모자원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147
마리아 모자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802-3
목련모자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33-11
애미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58-1
에스더의집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06

직업훈련기관	주소
경북 직업전문학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717-3
인천 직업전문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1389-2
경기 직업전문학교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고주리 196-1
강원 직업전문학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2
호남 직업전문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58-7
효광 교호직업보도원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53-6
한밭 직업훈련원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397-10
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00-3

소년원학교	주소
서울소년원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0
대구소년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
안양소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57

다. 설문조사의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배경질문 : 현재 소속기관, 나이, 성별, 학력인정여부,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시기의 학업성적, 학업중단에 대한 자기 평가
- 학업중단의 이유
- 학업중단이후 삶의 경로 : 학업중단이후 현 소속기관까지의 걸린 기간, 학업중단이후 생활사적 경로
- 학업중단이후 불완전 근로 경험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가장 처음으로 해보았던 아르바이트 직종, 아르바이트 구직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아르바이트의 이유, 기간, 보수, 부당대우 경험 유무,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부모동의서 제출여부, 청소년아르바이트 관련 법률 숙지여부, 경제적 도움여부, 만족여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에 대한 제언
-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 향후 진로설정, 진학의 이유, 진학을 위한 준비, 취업의 이유, 업종,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시하는 것, 구직시 어려운 점, 취업을 위한 노력, 직업훈련 업종선택여부, 직업훈련 희망기관, 목적, 지원형태, 프리터 선택의 이유, 진로미결정 사유
- 진로준비 경험 유무 :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 소집단 활동, 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생활 직접체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수령 여부.

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소속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33.6%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이며, 21.0%가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으며, 쉼터에 6.4%, 소년원 학교에 33.8%,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에 5.2%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분포하고 있다.

나이별 분포로는 17세가 28.0%로 가장 많고, 18세가 27.4%로 다음으로 많

은 편이며, 16세가 15.5%, 15세가 10.3%, 19세가 8.1%, 14세가 6.9%, 20세가 2.0%, 13세가 1.7%, 12세가 0.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66.9%, 여자가 33.1%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2> 현재 소속 기관 (단위: 빈도, %)

구분	
대안학교	278(33.6)
직업훈련기관	174(21.0)
쉼터	53(6.4)
소년원	280(33.8)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43(5.2)
합계	828(100.0)

<표 III-3> 현재 나이(단위: 빈도, %)

구분	
12	2(0.2)
13	14(1.7)
14	56(6.9)
15	84(10.3)
16	126(15.5)
17	228(28.0)
18	223(27.4)
19	66(8.1)
20	16(2.0)
합계	815(100.0)

<표 III-4> 성별(단위: 빈도, %)

구분	
남	548(66.9)
여	271(33.1)
합계	819(100.0)

학업 중단 시점의 분포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중학교 중간이 44.5%, 실업고 중간이 30.4%, 인문고 중간이 25.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고 1학년 중간이 2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 중간이 17.4%, 중학교 1학년 중간이 16.6%, 인문고 1학년 중간이 10.5%, 중학교 3학년 중간이 10.4%, 인문고 2학년 중간이 10.0%, 인문고 3학년 중간이 4.6%, 실업고 3학년 중간이 1.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5> 학업중단 시점(단위: 빈도, %)

구분	
중학교 중간	342(44.5)
실업고 중간	234(30.4)
인문고 중간	193(25.1)
합계	769(100.0)

<표 III-6> 학업중단 시점(단위: 빈도, %)

구분	
중학교 1학년 중간	128(16.6)
중학교 2학년 중간	134(17.4)
중학교 3학년 중간	80(10.4)
실업고 1학년 중간	159(20.7)
실업고 2학년 중간	61(7.9)
실업고 3학년 중간	14(1.8)
인문고 1학년 중간	81(10.5)
인문고 2학년 중간	77(10.0)
인문고 3학년 중간	35(4.6)
합계	769(100.0)

2. 기관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방법

: 질적 면접조사

가. 표집 및 조사방법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 실태를 파악하려 한 반면, 질적 면접조사에서는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이론적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 실태 및 그들의 생활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 면접조사의 표집방법 및 전략으로는 애초에, 이론적 안내에 따라, 대표적 유의표집(representative purposive sampling)의 방법을 원용하여, 진학지향형, 취업지향형, 방임형의 세 유형별로, 각 3명씩 학업중단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진학지향형의 학업중단 청소년 3명은 검정고시 학원의 청소년들을, 둘째, 취업지향형의 학업중단 청소년 3명은 요리학원 등의 사설학원에서, 셋째, 방임형의 청소년들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 등의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심층면접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애초에 소수의 심층면접 방법의 질적 조사가 갖는 귀납적 일반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면접대상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FGI를 갖고 그 결과를 정리, 제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심층면접조사와 FGI의 전략은 섭외가 무척이나 어렵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들 특유의 퇴행행위(withdrawl behavior), 즉,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좋지 않은 낙인들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기를 무척이나 꺼려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연구여건에서는 실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

따라서, 애초의 계획 중, 진로유형별 표집방법과 전략은 포기하고, 학업중

단 청소년들 9명만을 심층 면접하기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전략수정에 따라, 첫째, 컴퓨터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 친구들을 소개받는 방법, 둘째, 인터넷 사이버 상의 중퇴 청소년들의 모임을 통하여 접근하는 방법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여기서, 컴퓨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친구들을 소개받는 방법은 컴퓨터라는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표본의 경향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인터넷 사이버(다음카페) 상의 '중퇴 청소년 모임'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 9명을 섭외,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인터넷 사이버 상의 '중퇴청소년 모임'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먼저 인터넷 카페 등을 검색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찾았고, 이 카페에 자기 소개 및 연락처를 남긴 청소년들을 위주로 개별 접촉을 시도하였다. 개별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친분이 있는 청소년들도 면담을 시도하였다. 먼저 전화 연락을 하여 면담을 위한 섭외를 하고 대면하여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신분적 특성(즉 스스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드러내 놓기를 꺼려한다는 점)과 현재의 사회 풍토(학업 중단자에 대해 벽안시하는 태도) 등이 맞물려 아직 라пп가 형성되지 않은 연구자를 만나기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어서 비행이나 일탈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낯선 사람(연구자)과의 만남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약속을 잡아놓고도 부모의 만류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경우도 있었고, 면담을 하러 나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위험하니 조심해라"라는 부모님의 걱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면담 약속에 응하는 청소년들과는 직접 만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만나기를 꺼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전화면담을 병행하였다.

나. 면접조사의 내용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생활 : 학업 중단 시기 및 이후 인생 경로(학원, 아르바이트, 또래 집단, 하루 일과 등), 학업 중단 사유, 학업 중단시 학업 성적 및 학교에 대한 인상, 학업 중단 이후의 심경, 진로 준비 기관과의 접촉 여부
- 미래 설계 : 학업 중단 이후의 인생 설계 및 계획, 진학, 취업 혹은 미결정, 특정 진로 설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가족, 친구, 친지, 네트워크 등)
- 취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 가장 관심있는 취업 분야,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취업 준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 취업과 관련하여 경험한 사회적 대우 및 어려운 점,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유용한 정보 채널,
학업 중단 경험과 취업의 연결 상황: 개인적 고충이나 주변 친구들의 사례, 아르바이트 경험과 취업 준비의 연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등,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로부터 바라는 점(취업지원방안).
- 진학에 관심이 있는 경우 : 원하는 진학 기관, 진학을 위한 준비 상황 및 전략
- 가족 배경, 부모님, 형제간의 관계 등 기타 개별면담자의 특성에 따른 질문들.

다. 면접대상자의 특성

면접대상자 9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름	성 별	연 령	이전학교 (인문/실업)	학업종단 시기	가입 카페	아르바이 트 경험	진로설정	현재
김수연	여	17	경기도 K 여자 정보산업고 (실업계)	2003. 4월 (당시 고1)	Daum (블랙고시)	무	대학진학 (요리사, 헤어디자이너)	고졸 검정고시 준비(독학)
김소정	여	18	1차 G중학교 2차 고1 S여고 2일등교후 자퇴	2000. 5월 (당시 중2)	Daum (외자몽)	현재(3개월) 소렌토 (스파게티 전문점)	대학진학 (패션, 컴퓨터, 다양한 관심분야)	고졸 검정고시 준비(독학)
김여진	여	19	신도시 J고교 (인문계)	2002. 10월 (당시 고2)	Daum (블랙고시)	과거(3개월) 용우동 (분식점)	일본유학 (인테리어관련)	일본유학 준비
손은옥	여	18	경기도 M여고 (인문계)	2003. 5월 (당시 고2)	Daum (외자몽)	PC방	대학진학& 가업(섬유공장) 계승 희망	고졸 검정고시 준비(학원)
이경준	남	18	D 상업고 (실업계)	2002. 4월 (당시 고1)	Daum (블랙고시)	무	대학진학 (컴퓨터, 경영학, 인터넷 비즈니스)	수능 준비 (독학)
이혜리	여	17	경기도 S 정보고 (실업계)	2003. 3월 (당시 고1)	Daum (블랙고시)	무	대학진학 (가수, 요리사, 영어)	고졸 검정고시준 비(학원)
김수홍	남	19	신도시 J고 (인문계)	2002. 4월 (당시 고2)	무	과거(6개월) KFC	미술관련 대학진학 (회화, 의상디자인)	미술학원
김다롱	여	18	1차 전라도 인문계고 2차 전라도 J 정보과학고 (실업계)	2002 (당시 고1)	무	무	대학진학 (CF출연, 소규모사무실 취직, 음악과외교사, 가업계승)	고졸 검정고시 준비(학원)
정 찬	남	19	부천에 있는 인문계고	2001 (당시 고1)	Daum (외자몽)	과거(18개 월) 영인산업 (전구만드 는 회사)	대학진학 (실용음악, 컴퓨터관련, 인터넷 작가)	수능준비 (독학)

IV. 결과분석

1.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과 태도

가.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을, 학교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진로설정 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노동시장 관련 요인으로 크게 나뉘며, 첫 번째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학교관련 요인으로는 우선,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7.2%를 차지하고 있고, 재학 중의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3%,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3%로, 전부 합해서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넘는 51.5%의 청소년들이 학교관련 요인을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가정관련 요인으로는,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 무단결석, 가출 등으로 이어져서 학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19.6%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3%로, 전부 합해서 23.9%의 청소년들이 가정관련 요인을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제도화된 진로 거점으로서의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1%,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3%,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학업을 중단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0%를 차지해, 전부 합해서 11.4%의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정규학교

로부터 이탈하여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이 4.3%,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2.4%의 비율을 차지해, 전체 6.7%의 청소년들이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시장 관련 요인으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전체의 0.7%에 불과해, 청소년 노동시장 요인과 관련해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의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전체 학업 중단 이유 - 기관수용 청소년(단위: 빈도, %)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30(4.3)	11(1.7)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17(2.4)	15(2.4)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30(4.3)	24(3.8)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무단결석, 가출 등)	138(19.6)	52(8.2)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서	93(13.2)	68(10.8)
비행이나 범죄로	109(15.5)	81(12.8)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121(17.2)	119(18.9)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16(2.3)	17(2.7)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차별대우 등)	23(3.3)	38(6.0)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43(6.1)	71(11.3)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7(1.0)	27(4.3)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30(4.3)	47(7.4)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5(0.7)	10(1.6)
기타	43(6.1)	51(8.1)
합계	705(100.0)	631(100.0)

이러한 결과를 살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해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51.5%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향후 자신의 진로설정과 관

련하여 제도화된 진로거점으로서의 학교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청소년의 비율도 11.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62.9%의 청소년들이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학교와 관련된 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정과 관련한 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도 23.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반면, 개인적 사유와 노동시장 요인과 관련해서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기관 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에 관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경준과 수연은 고등학교 진학 초기에 학교 생활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들은 고등학교 진학후 한·두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부분을 학교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데 큰 이유를 두고 있다.

경준: 학교를 그만둔 게 작년 4월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2달 정도 다니다 그만뒀어요.

면담자: 학교를 2달 만에 그만 둘 이유라도 있었어요?

경준: 학교가 맘에 안 들었어요. 처음에 컴퓨터 공부하려고 상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컴퓨터는 안 가르쳐주고, 과도 2학년 때 정한다고 그랬어요.

면담자: 고등학교는 2달 정도 밖에 안 다녔네요? 그렇게 마음이 안 들었어요?

수연: 학교에 다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적응이 잘 안될 거 같아서요...예, 제가 요리 좋아하는데, 그런거 배우지도 않고.....요리 관련 동아리도 다 떨어졌어요.

면담자: 떨어져요?

수연: 면접보고 10명 정도 뽑아요.

면담자: 그게 학교 그만 둔 가장 큰 이유예요?

수연: 예. 그리고 학교가 너무 멀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니고.

면담자: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렸나요?

수연: 1시간 10분이요.

이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청소년들인데, 실업계 학교의 특성상 자신이 배우기를 원하는 기술이나 직업관련 관심사를 일정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두 번째는 규격화된 학교제도와 문화에의 부적응이 학업중단의 원인이 된 경우이다. 수홍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격하게 짜여진 생활을 하여야 하는 학교생활의 제도적 구속이 한층 강화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이상 학교 생활과 타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수홍: (학교를 그만 둔) 사연이라고 할거까지는 없고요. 학교가 너무 답답하고, 얹매이게 있어서요. 제 성격이 얹매이거나, 계획에 짜여있고, 틀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양가 있는 수업이면 좋을텐데,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남는 것, 얻는 것도 얼마 안되고,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면담자: 학교가 너무 싫다는 생각을 꼭 하셨는데,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수홍: 제가 생각은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1학년 때는 많이 놀고, 2, 3학년 때보다는 규제가 덜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별로 상관 안하고. 전 친구들 때문에 다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학년 때 들어오니 너무 힘들어지고, 이건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만됐죠.

이처럼 친구나 교사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학교 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교우 및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학업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이다. 소정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교우관계를 맺기 힘들었고 원만한 사회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탓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또 다른

학업 중단 청소년인 정찬은 가장 큰 학업 중단 사유로 자신의 담임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면담자: 처음에 중학교 그만 둘 때는 왜 그만 두신거예요?

소정: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한 동안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다리랑 팔이랑 3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제가 많이 예민했어요. 학교가 언덕에 있었는데, 학교 오갈 때 친구들 시선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맨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자퇴한다고 얘기는 못하구요, 당연히 반대하실 거 같아서요. 다리 수술하고 싶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죠. 선생님께도 수술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수술할 동안 휴학 상태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전 다리 수술보다는 학교가 원래 다니기 싫어서 수술 핑계 대고서는 그만두게 되었죠.

면담자: 친구들 시선 때문이에요?

소정: 예, 그것 때문에. 학교 다니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정찬: 선생님이 “변태” 였어요. 애들 때릴 때도 웃으면서 때리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제가 우리반에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로 그만둔 애예요.

네 번째 경우는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이다. 즉, 청소년의 가정불화로 가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학업이 중단된 경우이다. 중 3이 끝나는 겨울방학에 가출한 헤리는 가출하면서 교복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 고등학교 입학식날 참석은 했지만 다니게 된 학교가 자신이 처음에 원했던 학교도 아니고 가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었다고 한다. 3월달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현재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다.

면담자: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교를 바로 그만 둔 거예요?

헤리: 예, 아예 학교를 안 나갔어요. 입학식 날 밖에 안 나갔어요.

면담자: 학교를 그렇게 빨리 그만 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헤리: 제가 사실은 가출을 해서 학교를 못 나갔어요.....제가 아빠랑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빠가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던 거 같아요. 동생들한테만 잘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말할 사람도 없고, 답답해서 집을 나갔죠. 아빠랑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기도 했어요.

다섯 번째 경우는 제도화된 진로거점으로서의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한 경우이다.

다롱은 전라도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하였고, 중퇴해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나 역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여 다닐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면담자: 왜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다롱: 그냥 학교가 싫었어요.

면담자: 학교가 그렇게 싫었어요?

다롱: 선생님들이랑 노는 것도 좋고, 선생님들도 저 말 잘 안 들어도 좋아 하셨는데, 그냥 적응이 안 되거죠.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시는데 적응이 안 되어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두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요, 3일 다니다가 또 그만뒀어요.

다롱: 하나는 인문계 남녀 공학 고등학교였고, 또 하나는 실업계 정보과학 고등학교 미용과 다녔었어요.

면담자: 미용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롱: 대구로 가서 친구들(학업 중퇴 후 만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얼마 연락이 와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학교 같이 보내준다고 해서 다함께 복학했어요....저희가 단체로 입학하려고 하니깐, 받아주는 곳이 그곳 밖에 없었어요. 거긴 꼴통 밖에 없거든요.

면담자: 친구들도 다 같이 들어간 학교를 그런데 왜 다롱 양 혼자만 그만뒀어요?

다롱: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 했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공부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산 고모집으로 올라와서 검정고시 학원 등록했죠.

2003년 19세인 여진은 신도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하였다. 여진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가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고 현재의 학교생활을 지속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진로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되는 진로를 설정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 다닐때의 성적은 반에서 6-7등 정도로 상위권이었다.

여진: 제가 원래 육사를 가고 싶었거든요.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엄마가 일본에 이모님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1년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자퇴를 했고요...최종 목표가 군인이 되는 거였는데, 육사는 디스크 있으면 안 뽑거든요.

면담자: 학교 그만 둘 당시에 ‘나 학교 그만두고 일본 가야지’라는 생각하시고, 그만 두신 거예요? 아니면 그만 두시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진: 학교 그만 두기 전예요.

그녀는 일단 자신의 진로가 설정된 이상 더 이상 지체하기 싫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진로 같은 건...” 이처럼 학교 생활 자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학교를 다님으로써 취할 수 있는 진로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정규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이다. 근래에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을 살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조기 유학을 가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편,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 첫 번째 이유를 학업중단 시기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재학중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 학업을 중간에 그만 둔 경우가 전체의 28.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고, 재학 중의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16.9%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12.1%,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11.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실업고 재학중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 학업을 중간에 그만 둔 경우가 전체의 18.5%, 재학 중의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18.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고,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15.1%,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14.1%의 분포를 나타내 중학교 재학중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과 비슷한 응답유형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IV-2> 학업중단시기별 학업중단의 첫번째 이유(단위: 빈도, %)

		학업중단시기		
		중학교	실업고	인문고
학업 중단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10(3.2)	11(5.4)	6(3.8)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5(1.6)	7(3.4)	4(2.5)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16(5.1)	10(4.9)	2(1.3)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무단결석, 가출 등)	88(28.0)	38(18.5)	10(6.3)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37(11.8)	29(14.1)	26(16.3)
	비행이나 범죄로	53(16.9)	38(18.5)	12(7.5)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38(12.1)	31(15.1)	48(30.0)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7(2.2)	7(3.4)	1(0.6)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차별대우 등)	10(3.2)	8(3.9)	4(2.5)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6(5.1)	11(5.4)	16(10.0)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5(1.6)		1(0.6)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11(3.5)		19(11.9)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2(0.6)	3(1.5)	
	기타	16(5.1)	12(5.9)	11(6.9)
합계		314(100.0)	205(100.0)	160(100.0)

$\chi^2 =$
108.309

* p < .05, **p < .01, ***p < .001

반면, 인문고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6.3%의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11.9%,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10.0%의 응답분포를 보여, 앞의 중학교 재학중이나 실업고 재학중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학교 재학 중이나 실업고 재학중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가정 관련 요인이나 재학중 비행이나 범죄요인을 주된 요인으로 한 상태에서 학교 부적응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 다음 요인으로 등장한 반면에, 인문고 재학중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 관련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등장한 가운데, 진로거점으로서의 제도화된 학교 교육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요인이 학업중단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

<표 IV-3> 성별 학업중단의 첫번째 이유(단위: 빈도, %)

		성별		
		남자	여자	
학업 중단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22(4.7)	8(3.5)	$\chi^2 = 40.577$ ***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10(2.1)	7(3.1)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3(4.9)	7(3.1)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무단결석, 가출 등)	76(16.1)	61(27.0)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64(13.5)	27(11.9)	
	비행이나 범죄로	81(17.1)	27(11.9)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95(20.1)	24(10.6)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6(1.3)	10(4.4)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차별대우 등)	16(3.4)	7(3.1)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25(5.3)	18(8.0)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3(0.6)	4(1.8)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25(5.3)	5(2.2)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4(0.8)	1(0.4)	
	기타	23(4.9)	20(8.8)	
합계		473(100.0)	226(100.0)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로는 남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 재학중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라고 응

답한 경우가 17.1%,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16.1%,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3.5%의 순으로 분포를 나타낸 반면, 여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27.0%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재학중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9%,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1.9%,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0.6%의 분포의 순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와 순서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나.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

기관 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16.3%,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2.7%, 후회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1.1%의 비율로 나타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16.3%에 불과한 반면, 과반수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4>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 - 기관수용 청소년(단위: 빈도, %)

구분	
잘했다고 생각한다	120(16.3)
그저 그렇다	241(32.7)
후회한다	377(51.1)
합계	738(100.0)

이를 학업중단 이유별로 나눠 살펴보면, 가정적 요인과 관련해서,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75.9%가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63.5%가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5> 첫번째 학업중단 이유별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단위: 빈도, %)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			합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저 그렇다	후회한다	
학업 중단 이유 (첫 번째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9(32.1)	7(25.0)	12(42.9)	28(100.0)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6(35.3)	7(41.2)	4(23.5)	17(100.0)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3(10.3)	4(13.8)	22(75.9)	29(100.0)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무단결석, 가출 등)	9(6.6)	41(29.9)	87(63.5)	137(100.0)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25(27.5)	26(28.6)	40(44.0)	91(100.0)
	비행이나 범죄로	8(7.5)	22(20.6)	77(72.0)	107(100.0)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17(14.2)	55(45.8)	48(40.0)	120(100.0)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3(20.0)	5(33.3)	7(46.7)	15(100.0)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차별대우 등)	7(31.8)	5(22.7)	10(45.5)	22(100.0)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3(31.0)	20(47.6)	9(21.4)	42(100.0)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2(28.6)	5(71.4)	7(100.0)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12(42.9)	10(35.7)	6(21.4)	28(100.0)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1(20.0)	1(20.0)	3(60.0)	5(100.0)
	기타	3(8.1)	16(43.2)	18(48.6)	37(100.0)

$\chi^2 =$
108.626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학교 요인과 관련해서는, 학교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44.0%가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재학 중 비행이나 범죄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72.0%가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

한 청소년의 40.0%가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46.7%가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45.5%가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정 요인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21.4%만이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21.4%만이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두 요인과 대조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봐서,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비해, 가정적 요인이나 학교 요인과 관련해서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에 대한 후회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시기별로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면, 중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63.0%가 학업을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실업고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55.7%가 학업을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는 반면, 인문고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4.9%만이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이는 앞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인문고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6> 학업중단 시기별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단위: 빈도, %)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			합계	$\chi^2 = 68.353$ ***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저 그렇다	후회한다		
학업 중단 시기	중학교	35(10.8)	85(26.2)	204(63.0)	324(100.0)	
	실업고	31(14.2)	66(30.1)	122(55.7)	219(100.0)	
	인문고	46(27.2)	81(47.9)	42(24.9)	169(100.0)	

* p < .05, **p < .01, ***p < .001

성별로는 남성의 15.3%, 여성의 18.0%가 학업을 그만둔 것을 잘 한 일이라

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53.8%, 여성의 45.1%가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7> 성별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단위: 빈도, %)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			합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저 그렇다	후회한다		
성 별	남	76(15.3)	154(30.9)	268(53.8)	498(100.0)	$\chi^2 =$ 4.866
	여	42(18.0)	86(36.9)	105(45.1)	233(100.0)	

* $p < .05$, ** $p < .01$, *** $p < .001$

2. 학업중단이후의 불완전 근로경험 실태

가.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 경험 유무

우선, 학업중단 이후,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 불완전근로(시간제 근로·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의 실태부터 살펴보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후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의 68.8%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0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29.2%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참여가 재학생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8> 학업중단이후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까지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빈도, %)

구분	
한번 이상 있다	490(68.8)
전혀 없다	222(31.2)
계	712(100.0)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학업중단의 이유별로 살펴 보면, 우선,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82.8%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
이 있으며,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 무단결석, 가출 등으로
이어져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82.2%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
이 있으며,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64.8%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
이 있으며, 재학중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76.2%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
이 있으며, 학
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59.3%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
이 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학
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73.3%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
이 있으며, 선생
님과 관계가 나빠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69.6%가 아르바이트에 참
여한 경험
이 있으며,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76.3%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적인 요인이든 학교관련 요인이든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청
소년들의 경우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다른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
업을 그만 둔 청소년들 중의 상당수가 많이 남는 시간을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생계형 용도로 아르바이트에 투자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반면,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중에는
57.1%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
이 있으며,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
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중에는 24.0%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학업중단 이유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단위: 빈도, %)

		아르바이트 경험	
		한번이상 있다	전혀 없다
학업 중단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16(64.0)	9(36.0)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9(56.3)	7(43.8)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4(82.8)	5(17.2)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무단결석, 가출 등)	106(82.2)	23(17.8)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57(64.8)	31(35.2)
	비행이나 범죄로	80(76.2)	25(23.8)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67(59.3)	46(40.7)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11(73.3)	4(26.7)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차별대우 등)	16(69.6)	7(30.4)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29(76.3)	9(23.7)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4(57.1)	3(42.9)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6(24.0)	19(76.0)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5(100.0)	
	기타	21(61.8)	13(38.2)

$\chi^2 = 51.228$

* $p < .05$, ** $p < .01$, ***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학업중단 시기별로 보면, 중학교에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비율이 73.2%, 실업고를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들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비율이 80.6%인데 비해, 인문고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44.7%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역시 중학교 시기와 실업고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가 많은데 반해, 인문고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

한 경험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용돈벌이나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IV-10> 학업중단시기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단위: 빈도, %)

		아르바이트 경험		합계	
		한 번 이상 있다	전혀 없다		
학업중단 시기	중학교	227(73.2)	83(26.8)	310(100.0)	$\chi^2 = 59.899$ ***
	실업고	170(80.6)	41(19.4)	211(100.0)	
	인문고	72(44.7)	89(55.3)	161(100.0)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로는 남성의 66.8가 학업중단이후 아르바이트에 나선 경험이 있고, 여성의 73.4%가 아르바이트에 나선 경험이 있어, 큰 별반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표 IV-11> 성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단위: 빈도, %)

		아르바이트 경험		합계	
		한 번 이상 있다	전혀 없다		
성별	남	322(66.8)	160(33.2)	482(100.0)	$\chi^2 = 3.107$
	여	163(73.4)	59(26.6)	222(100.0)	

* $p < .05$, ** $p < .01$, *** $p < .001$

나.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 참여 이유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용돈이 부족해서’가 37.4%,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33.1%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참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는 9.2%에 불과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취업준비를 위한 것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단위: 빈도, %)

구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	161(33.1)
학비를 벌기 위해	2(0.4)
용돈이 부족해서	182(37.4)
취업(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45(9.2)
여가 시간을 활용하려고	55(11.3)
주위(부모, 친지 및 친구들) 권유로	20(4.1)
기타	22(4.5)
계	487(100.0)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를 학업중단 이유별로 나눠 살펴 보면, 우선,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50.0%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20.8%가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으며, 가정 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 무단결석, 가출 등으로 이어져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47.7%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29.0%가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으며,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42.9%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

리고, 30.4%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으며, 재학중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44.9%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34.6%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으며,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38.8%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28.4%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적인 요인이든 학교관련 요인이든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용돈과 생활비 충당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들 중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주된 이유로는 용돈이 27.6%, 생활비가 24.1%, 여가활용이 24.1%로 나타나고 있으며,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용돈충당이 50.0%, 생활비 해결이 50.0%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용돈 충당이 50.0%, 생활비 충당이 25.0%로 나타나 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아르바이트는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든, 자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3> 학업중단 이유별 아르바이트 참여이유(단위: 빈도, %)

		아르바이트 참여이유							
		생활비	학비	용돈	취업 경험	여가활 용	주위권 유	기타	
학업 중단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6(40.0)	1(6.7)	3(20.0)	2(13.3)	3(20.0)			$\chi^2 = 87.879$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2(22.2)		4(44.4)	2(22.2)	1(11.1)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12(50.0)	1(4.2)	5(20.8)	4(16.7)	1(4.2)		1(4.2)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무단결석, 가출 등)	51(47.7)		31(29.0)	6(5.6)	11(10.3)	4(3.7)	4(3.7)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서	17(30.4)		24(42.9)	4(7.1)	5(8.9)	2(3.6)	4(7.1)	
	비행이나 범죄로	27(34.6)		35(44.9)	6(7.7)	3(3.8)	4(5.1)	3(3.8)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19(28.4)		26(38.8)	8(11.9)	8(11.9)	3(4.5)	3(4.5)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3(30.0)		2(20.0)	3(30.0)	1(10.0)	1(10.0)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차별대우 등)	1(6.7)		8(53.3)	2(13.3)	3(20.0)	1(6.7)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7(24.1)		8(27.6)	4(13.8)	7(24.1)	3(10.3)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2(50.0)		2(50.0)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2(25.0)		4(50.0)	1(12.5)	1(12.5)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2(40.0)		3(60.0)					
	기타	4(20.0)		10(50.0)	1(5.0)	2(10.0)	1(5.0)	2(10.0)	

* p < .05, **p < .01, ***p < .001

아르바이트 참여이유를 학업중단 시기별로 나눠보면, 중학교에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우가 39.7%, 용돈을 벌기 위해서 34.8%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업고에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의 경우에도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1.7%,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0.4%로

나타났으며, 인문고를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의 경우에도 용돈을 벌기 위해서가 37.0%,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20.5%인 것으로 나타나, 학업 중단 시기에 관계없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학업중단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이유(단위: 빈도, %)

		아르바이트 참여이유							합계	
		생활비	학비	용돈	취업 경험	여가 활용	주위 권유	기타		
학업 중단 시기	중학 고	89 (39.7)	2 (0.9)	78 (34.8)	19 (8.5)	21 (9.4)	8 (3.6)	7 (3.1)	224 (100.0)	$\chi^2 =$ 19.637
	실업 고	51 (30.4)		70 (41.7)	14 (8.3)	17 (10.1)	9 (5.4)	7 (4.2)	168 (100.0)	
	인문 고	15 (20.5)		27 (37.0)	8 (11.0)	14 (19.2)	3 (4.1)	6 (8.2)	73 (100.0)	

* p < .05, **p < .01, ***p < .001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를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8.4%,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6.8%로 나타났으며, 여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5.6%,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6.8%로 나타나, 성별로도 큰 차이없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성별 아르바이트 참여이유(단위: 빈도, %)

		아르바이트 참여이유							합계	
		생활비	학비	용돈	취업 경험	여가 활용	주위 권유	기타		
성별	남	98 (30.8)	2 (0.6)	122 (38.4)	36 (11.3)	36 (11.3)	12 (3.8)	12 (3.8)	318 (100.0)	$\chi^2 = 7.955$
	여	60 (36.8)		58 (35.6)	9 (5.5)	18 (11.0)	8 (4.9)	10 (6.1)	163 (100.0)	

* p < .05, **p < .01, ***p < .001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에 대한 응답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에 대한 응답의 1순위로 보수(51.6%)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적성(11.2%),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함(10.8%), 시간적 여유(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 시간적 여유(18.5%), 보수(15.9%), 숙식제공 여부(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2순위 모두 보수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적인 여유도 중요한 고려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IV-16>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단위: 빈도,%)

구분	1순위	2순위
보수	235(51.6)	62(15.9)
시간적 여유	43(9.5)	72(18.5)
나의 적성	51(11.2)	28(7.2)
근무 환경	18(4.0)	51(13.1)
숙식 제공 여부	28(6.2)	57(14.7)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가의 여부	15(3.3)	52(13.4)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함	49(10.8)	48(12.3)
기타	16(3.5)	19(4.9)
계	455(100.0)	389(100.0)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의 경제적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가 12.7%,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59.6%로 나타났으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17.1%,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10.6%의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72.3%로서 부정적 평가 27.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있어 아르바이트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의 경제적 도움 정도(단위: 빈도, %)

구분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61(12.7)
약간 도움이 되었다	286(59.6)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82(17.1)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51(10.6)
계	480(100.0)

한편, 아르바이트 체험이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가 11.2%,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가 37.4%로 나타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23.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28.3%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48.6%,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51.4%로, 각각 절반정도의 응답자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절반정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가 미래의 직업생활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IV-18>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체험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단위: 빈도, %)

구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4(11.2)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180(37.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11(23.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36(28.3)
계	481(100.0)

다.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의 여건

앞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68.8%가 학업중단이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주로 용돈이나 생활비 충당 등,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을 살펴 보았다. 그럼, 대다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장의 근로여건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임금, 부당한 대우 등으로 나눠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의 근로 여건을 살펴 보았다.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한 아르바이트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점(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 카운터 또는 배달을 한 경우가 전체의 1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가 13.8%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을 본 경우가 11.7%,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을 본 경우가 10.9%,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한 경우가 9.6%,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을 본 경우가 7.7%,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를 한 경우도 5.3%, 신문 및 우유배달을 한 경우가 4.9%,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을 한 경우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이 1.7%, 공장노동이

1.7%, 일반상점 판매원이 1.5%, 24시간 편의점 점원이 1.3%, 비디오 대여점 카운터 및 서빙이 1.1%, 건설현장 노동이 1.1%,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이 0.9%, 여관 카운터 및 서빙이 0.9%,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포장이 0.6%,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가 0.2%, 사무업무 보조가 0.2%, 아기, 노인 돌보기가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드는 아르바이트 업종이 매우 비교육적이고,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고용이 금지되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음식점(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 카운터 또는 배달,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주유소 주유원, 신문 및 우유배달이 대부분의 주종을 이루며,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음반판매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등)인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이, 비디오 대여점 카운터 및 서빙,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여관 카운터 및 서빙에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업종(단위: 빈도, %)

첫 번째 아르바이트 업종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부착)	65(13.8)
신문 및 우유배달	23(4.9)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55(11.7)
24시간 편의점 점원	6(1.3)
일반상점 판매원	7(1.5)
비디오 대여점 카운터 및 서빙	5(1.1)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	51(10.9)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36(7.7)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13(2.8)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	8(1.7)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4(0.9)
여관 카운터 및 서빙	4(0.9)
음식점(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 카운터 또는 배달	88(18.7)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빼끼), 서빙 및 접대	14(5.3)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0.2)
주유소 주유원	45(9.6)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3(0.6)
건설현장 노동	5(1.1)
공장노동	8(1.7)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0.2)
아기, 노인 돌보기	1(0.2)
기타	16(3.4)
합계	470(100.0)

아르바이트를 지속한 기간을 살펴보면, '약 6개월 이상'이 21.9%로 가장 높고, '약 2개월'이 21.6%, '약 16-30일'이 19.6%, '약 1-15일'이 14.3%, '약 3개월'이 13.7%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재학생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지속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21.9%의 응답자에게 있어서는 아르바이트가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개월 이하가 약 34%로 나타나, 여전히 아주 짧은 기간동안만 지속하는 청소년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지속한 기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일 내내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4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일(34.5%), 5일(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규직 근로와 비슷한 형태인 6-7일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가 '준 직업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르바이트를 지속한 기간을 하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시간이 21.1%, 12시간이 19.7%로 매우 높고, 다음으로 8시간(8.9%), 6시간(6.9%), 5시간(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의 1일 청소년 근로제한시간인 8시간을 넘겨 근로한 비율이 약 63%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법적인 근로제한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0>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지속 기간(전체)(단위: 빈도, %)

구분	
약 1-15일	65(14.3)
약 16-30일	89(19.6)
약 2개월	98(21.6)
약 3개월	62(13.7)
약 4개월	27(6.0)
약 5개월	13(2.9)
약 6개월 이상	99(21.9)
계	453(100.0)

<표 IV-21>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지속 기간(일주일 기준)(단위: 빈도, %)

구분	
1일	15(4.4)
2일	10(2.9)
3일	9(2.6)
4일	11(3.2)
5일	36(10.5)
6일	118(34.5)
7일	143(41.8)
계	342(100.0)

<표 IV-22>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지속 기간(하루 기준)(단위: 빈도, %)

구분	
1시간	8(2.2)
2시간	4(1.1)
3시간	12(3.3)
4시간	12(3.3)
5시간	25(6.9)
6시간	25(6.9)
7시간	17(4.7)
8시간	32(8.9)
9시간	23(6.4)
10시간	76(21.1)
11시간	15(4.2)
12시간	71(19.7)
13시간	13(3.6)
14시간	9(2.5)
15시간	8(2.2)
16시간	6(1.7)
17시간	2(0.6)
18시간	2(0.6)
계	360(100.0)

아르바이트의 시간당 보수를 살펴보면, '5,000원 초과'가 2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00원 초과 - 3,000원 이하'가 19.8%, '2,000원 초과 - 2,500원 이하'가 19.2%로 나타났다. 기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조사와 비교해보면, 보수의 수준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내용과 아르바이트 종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과 거의 다름없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은 실제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준 정규직의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간당 '5,000원 초과'는 거의 유흥업종에 관련된 아르바이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002년 9월 1일 - 2003년 8월 31일까지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2,048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의 응답자가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시간당 보수(단위: 원도, %)

구분(원)	
1000 이하	7(2.2)
1000 초과 - 1500 이하	17(5.3)
1500 초과 - 2000 이하	38(11.8)
2000 초과 - 2500 이하	62(19.2)
2500 초과 - 3000 이하	64(19.8)
3000 초과 - 4000 이하	40(12.4)
4000 초과 - 5000 이하	23(7.1)
5000 초과	72(22.3)
계	323(100.0)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가 27.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가 14.4%,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가 24.1%,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가 16.3%,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가 19.3%,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가 36.0%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가 35.1%,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가 17.9%,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가 9.5%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의 재학생조사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일을 하는 도중 고용주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청소년을 문제아로 낙인

찍어 일하는 도중 훨씬 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표 IV-24>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경험 여부(단위: 빈도, %)

구분	그런 적 있다	그런 적 없다	계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16(27.2)	310(72.8)	426(100.0)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59(14.4)	350(85.6)	409(100.0)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99(24.1)	312(75.9)	411(100.0)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66(16.3)	340(83.7)	406(100.0)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79(19.3)	331(80.7)	410(100.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153(36.0)	272(64.0)	425(100.0)

<표 IV-25>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경험 여부(단위: 빈도, %)

구분	여러번 있다	한두 번 있다	전혀 없다	계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50(12.0)	96(23.1)	270(64.9)	416(100.0)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1(5.1)	53(12.8)	340(82.1)	414(100.0)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2(2.9)	27(6.6)	372(90.5)	411(100.0)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처행위를 살펴보면,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고 일하였다'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인이나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다'가 23.6%, '항의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중단하였다'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12.6%, ‘경찰이나 노동사무소 등 공식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적극적인 대처유형의 응답은 4.3%에 그쳐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행위가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대부분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표 IV-26>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 대처 방안(단위: 빈도, %)

구분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고 일하였다	120(47.2)
항의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중단하였다	31(12.2)
주인이나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60(23.6)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32(12.6)
경찰이나 노동사무소 등 공식 관련기관에 신고했다	11(4.3)
계	254(100.0)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 지를 살펴보면, ‘작성했다’가 16.1%, ‘작성하지 않았다’가 83.9%로 나타나,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에게 제출했는 지에 관해 살펴보면, ‘제출했다’가 33.3%, ‘제출하지 않았다’가 66.7%로 나타나, 약 2/3의 응답자가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인 제도로부터 자신의 아르바이트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무지하거나 소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27>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단위: 빈도, %)

구분	
작성했다	77(16.1)
작성하지 않았다	402(83.9)
계	479(100.0)

<표 IV-28>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단위: 빈도, %)

구분	
제출했다	159(33.3)
제출하지 않았다	318(66.7)
계	477(100.0)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제도적 권리 보호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아르바이트에 관련한 조항들에 대한 인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49.3%,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39.6%,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사업주나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67.7%, ‘일하다 다친 경우, 업주로부터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50.0%,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했을 경우, 평일 임금의 30-50%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39.4%로 각각 나타났다. 1가지 조항만 제외하고 모든 조항에서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과반수 이하로 나타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지식

에 해박하지 못하며,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노동법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29>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지식 정도(단위: 빈도, %)

구분	알고 있었다	전혀 몰랐다	계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222(49.3)	228(50.7)	450(100.0)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177(39.6)	270(60.4)	447(100.0)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사업주나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306(67.7)	146(32.3)	452(100.0)
일하다 다친 경우, 업주로부터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24(50.0)	224(50.0)	448(100.0)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했을 경우, 평일 임금의 30-50%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177(39.4)	272(60.6)	449(1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이후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노정되며, 상대적으로 장시간, 고임금의 준 직업적 성격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가운데, 일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재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이러한 부당대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행위에도 무지하거나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면접조사의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면접조사 청소년들의 경우,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아르바이트의 주 업종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 서빙, PC방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관심분야와는 동떨어진 몇몇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다. 그리고,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관심분야와 동떨어진 제한된 업종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기보다는 용돈 충당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진다.

면담자: 학교 그만두고 나서 아르바이트 같은 건 안 해봤어요?

은옥: PC방이요. 지금하고 있어요.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요.

면담자: 일 시작한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은옥: 며칠 밖에 안 되었어요.

면담자: 시급은 얼마나 해요?

은옥: 2000원이에요.

면담자: 좀 적네요, 다른 곳에 비해서.

은옥: 여기는 별로 힘든 일이 없잖아요.

면담자: 그 아르바이트가 은옥양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은옥: 학교 그만두고 나서 엄마한테 용돈 받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쓰려고요.

면담자: 지금 학원만 다니고 아르바이트나 일 같은 건 안 하나요?

수홍: 학교 그만두고 일 조금 하다가 학원 다니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만뒀죠.

면담자: 학교 그만두고 무슨 아르바이트했어요?

수홍: 패스트푸드점, KFC요.

면담자: 거기서는 얼마나 일했어요?

수홍: 6개월이요.

면담자: 시급은 얼마였어요?

수홍: 처음에는 2200원이고, 3개월마다 100원씩 올라가요. 요즘은 2300원에서 2400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솔직히 학생들이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시급이 높은 곳은 미성년자는 안 뽑으니까요.

소정: 아르바이트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해요.

면담자: 힘들지 않아요?

소정: 힘은 드는데요, 많이 손에 익어서요. 거의 3개월 접어들었거든요.

면담자: 시급은 얼마나 줘요?

소정: 맨 처음 시작할 때는 2300원이구요, 그 다음달은 2500원, 그 다음은 2800원, 그리고 3000원이 맨 마지막이에요. 전 이제 3000원 되었어요.

면담자: 그래도 빨리 빨리 많이 오르는 편이네요.

소정: 그래도 하는 일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 안해요.

면담자: 뭐하는가요? 서빙이요?

소정: 단순한 서빙이 아니라요, 음식 나르고, 치우는 건 기본이고요, 도리아나 마늘빵 같은 것도 직접 굽기도 하고, 마감 시간되면 화장실 청소 다하고, 매장 정리 다 하고 그래요.

면담자: 지금부터 하면 저녁 시간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겠네요.

소정: 그걸 예상을 못해요. 비오는 날인데 손님 없을 것 같아도 정말 많은 날도 있고요, 한 번에 막 들어찰 때도 있고, 드문 드문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면담자: 그럼, 소렌토(스파게티 전문점)에서는 어떻게 일하게 되었어요?

소정: 부모님한테서 따로 용돈을 안 받으니까요.

면담자: 착하네요. 그럼 부모님이 용돈 안 주셔서 아르바이트하는 거예요?

소정: 지금 당장 제가 돈이 쓸 때는 별로 없지만, 돈이 아예 없다 보니까 경험상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서 찾았어요.

일본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여진의 경우 조형 예술, 인테리어 쪽으로 관심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는 거의 구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녀는 학업 중단 후 분식점에서 3개월간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허리가 안 좋아 그만두었다고 한다.

면담자: 그거(조형예술) 관련해서 정보 안 찾아봤어요?

여진: 알아봤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아르바이트가 잘 없더라고요.

면담자: 어떤 분야가 있죠?

여진: 공간연출하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있고요. 또 미술사도 있고요.

면담자: 그쪽으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여진: 그쪽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르바이트하려고 찾아보면 음식점 서빙 같은 거 밖에 없고요.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업종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등에서의 서빙인데, 이마저도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는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학업중퇴자라고 했을 때 자리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면담자: 혹시 아르바이트 같은 건 안 하세요?

혜리: 아르바이트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면담자: 아르바이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혜리: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면담자: 아르바이트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거예요?

혜리: 예, 어디 학교 다니냐고 그러면 난감하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려면 학교에서 뭐 떼오라고 그러고 통장도 가져오라고 그래요.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 안 다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 같아요....패스트푸드점 분당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아니라고 하니까 시급을 2500원에서 2200원으로 내리더라고요. 300원을 깎아서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라.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와 인식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부 및 사회의 지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방안들로는 '근로기준법상의 15세미만 청소년 근로금지조항, 18세미만 부모동의서 비치 조항 악용 방지'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최저임금법 준수)'이 18.0%,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의 설치'가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희망하는 방안들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건전 직종 개발, 보급'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의 설치'가 16.6%,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근절(고발센터 운영)'이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0>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단위: 빈도, %)**

구분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
근로기준법상의 15세미만 청소년 근로금지조항, 18세미만 부모동의서 비치 조항 악용 방지	87(20.0)	15(3.8)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최저임금법 준수)	78(18.0)	40(10.2)
근로계약서 작성 철저	40(9.2)	24(6.1)
계약시간외 부당 노동 근절	28(6.5)	28(7.1)
임금미지급 및 임금체불 근절	19(4.4)	24(6.1)
위험하고 불결한 노동환경 개선	10(2.3)	14(3.6)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근절 (고발센터 운영)	33(7.6)	53(13.5)
부모 및 사회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22(5.1)	19(4.8)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침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교육사업 전개	12(2.8)	13(3.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의 설치	51(11.8)	65(16.6)
청소년 아르바이트 건전 직종 개발, 보급	33(7.6)	74(18.9)
기타	21(4.8)	23(5.9)
계	434(100.0)	392(100.0)

3. 학업중단이후의 대안적 삶의 선택

정규학교로부터의 이탈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또래의 재학생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대신할 대안적 삶을 살게 된다. 자의든 타의든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청소년 보호시설, 소년원 학교 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거나, 요리학원에 다니기도 하며,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기도 한다.

우선,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청소년 보호시설, 소년원 학교 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부터 살펴보자.

정규학교를 그만 둔 이유와 현재 소속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50.0%는 소년원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16.7%는 직업훈련기관에, 16.7%는 직업훈련기관에 현재 소속되어 있다.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47.8%의 청소년들이 소년원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19.6%의 청소년들은 대안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13.8%는 쉼터에, 13.0%는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의 44.1%는 현재 대안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26.9%는 소년원 학교에, 19.4%는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중의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61.5%가 현재 소년원 학교에 속해 있으며, 20.2%는 대안학교에 속해 있다. 그리고,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33.1%가 직업훈련기관에, 28.9%는 대안학교에, 또 다른 28.9%는 소년원 학교에 현재 속해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의 50.0%는 현재 대안학교에 속해 있으며, 31.3%는 소년원에 소속되어 있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학업을 중단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43.5%는 대안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30.4%는 소년원에, 21.7%는 직업훈련기관에 속해 있다.

그리고,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32.6%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30.2%는 직업훈련기관에, 23.3%는 소년원에 속해 있다.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56.7%가 직업훈련기관에 속해 있으며, 40.0%는 대안학교에 속해 있다.

<표 IV-31> 학업중단이유별 현재 소속기관 (단위: 빈도, %)

		현재 소속 기관					
		대안학교	직업훈련 기관	쉼터	소년원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학업 중단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14(46.7)	4(13.3)	1(3.3)	9(30.0)	2(6.7)	$\chi^2 =$ 155.698 ***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8(47.1)	5(29.4)		3(17.6)	1(5.9)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5(16.7)	5(16.7)	3(10.0)	15(50.0)	2(6.7)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무단결석, 가출 등)	27(19.6)	18(13.0)	19(13.8)	66(47.8)	8(5.8)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41(44.1)	18(19.4)	6(6.5)	25(26.9)	3(3.2)	
	비행이나 범죄로	22(20.2)	11(10.1)		67(61.5)	9(8.3)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35(28.9)	40(33.1)	5(4.1)	35(28.9)	6(5.0)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8(50.0)	1(6.3)	1(6.3)	5(31.3)	1(6.3)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차별대우 등)	10(43.5)	5(21.7)	1(4.3)	7(30.4)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32.6)	13(30.2)	3(7.0)	10(23.3)	3(7.0)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3(42.9)	1(14.3)	1(14.3)	2(28.6)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12(40.0)	17(56.7)		1(3.3)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1(20.0)		4(80.0)		
	기타	20(46.5)	6(14.0)	5(11.6)	9(20.9)	3(7.0)	

* p < .05, **p < .01, ***p < .001

기관에 속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소속기관별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대안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34.1%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29.6%는 후회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에 속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14.9%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39.0%는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의 21.7%는 학업중단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21.7%는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인 79.2%가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시설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58.5%도 학업을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IV-32> 현재 소속 기관별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단위: 빈도, %)

		현재 소속 기관					
		대안학교	직업훈련 기관	쉼터	소년원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학업 중단에 대한 태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76(34.1)	23(14.9)	10(21.7)	9(3.3)	2(4.9)	$\chi^2 =$ 188.275 ***
	그저 그렇다	81(36.3)	71(46.1)	26(56.5)	48(17.5)	15(36.6)	
	후회한다	66(29.6)	60(39.0)	10(21.7)	217(79.2)	24(58.5)	
합계		223(100.0)	154(100.0)	46(100.0)	274(100.0)	41(100.0)	

* $p < .05$, ** $p < .01$, *** $p < .001$

그럼, 현재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대안적 삶의 형태를 면접조사 대상자들의 면접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학원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하거나, 검정고시 학원만을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거나, 검정고시 학원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혼자서 검정고시 준비만 하면서 지내기도 한다.

은옥은 검정고시 학원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경우다. 은옥은 비교적 생활이 규칙적으로 조직된다. 일정정도 외부적 강제가 주어지는 스케줄에 따라 하루 일과가 조직되는 것이다.

면담자: 요즘엔 몇 시에 일어나요?

은옥: 7시요.

면담자: 일찍 일어나네요.

은옥: 저희 집에서는 그것도 늦게 일어나는 건데요. 원래 5시나 6시에 일어나요. 식구들이요.

면담자: 일어나서 뭐해요?

은옥: 씻고, 밥 차려주면 밥 먹고, 시간 되면 나와요.

면담자: 학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은옥: 10시부터 1시까지요. 마치고 아르바이트 갔다가, 밤에 집에 들어가요. 아르바이트는 PC방에서 하고 있어요.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했던 헤리의 경우, 현재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집안 일도 돕고 있다.

면담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헤리: 7시 30분이에요.

면담자: 빨리 일어나네요. 7시 30분에 일어나서 뭐해요?

헤리: 학원 갈 준비해요. 학원이 9시 30분 시작인데요. 밥 먹고 8시 50분쯤에 집에서 나가요.

면담자: 9시 30분에서 몇 시까지 해요?

헤리: 1시 10분이에요.

면담자: 그러고 나서 다시 집에 가나요?

헤리: 예,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동생도 보고요.

면담자: 숙제는 뭐가 있어요?

헤리: 숙제는 가끔 내주고요, 혼자 그 날 배운 거 복습도 하고 그래요.

면담자: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헤리: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면담자: 그럼,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해요?

헤리: 틈틈이 쉬기도 하고, TV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공부만 하면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요.

면담자: 저녁에 엄마는 몇 시에 오세요?

헤리: 10시나 11시쯤이에요.

면담자: 그럼 저녁은 헤리양이 해결해요?

혜리: 예, 아빠가 8시쯤에 오시면 아빠 저녁 차려드리고요.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정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없는 오전 시간은 비교적 불규칙적으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자: 아침에는 몇시에 일어나요?

소정: 제가 원래 잠이 많이 없어서 7-8시에는 일어났는데, 요즘엔 어쩔 때 10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면담자: 10시에 일어나서 뭐해요?

소정: 씻고, 밥 먹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가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요.(소렌토, 이탈리아 음식점 서빙)

특정한 아르바이트나 검정고시학원을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주로 컴퓨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만난다. 수연은 아침 7시경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컴퓨터를 키고 메신저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자 아버지가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경준도 컴퓨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일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담자: 요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경준: 9시에 일어나서 씻고, 컴퓨터 조금하다가 공부하고, 친구들이 부르면 밖에 나가서 놀아요.

4.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실태

가. 기관 소속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1) 진로설정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은 크게 첫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직업을 가지려는 ‘순수 진학형’, 둘째, 아르바이트를 갖고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부업형 아르바이트’ 유형, 셋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려는 생각도,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는 ‘직업형 아르바이트’, 넷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형’의 네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순수진학형의 경우는 ‘다시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응답이 14.9%, ‘대안학교에 들어가겠다’가 4.2%,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 18.2%,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에 들어갈 예정’이 5.8%, ‘다른 학교로 편입학할 예정’이 0.4%,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 1.8%로 전체 응답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업형 아르바이트의 경우로 ‘취업은 하지 않고, 한 개 이상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진학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형 아르바이트의 경우로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한 개 이상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형의 경우는 ‘취업할 예정’이 28.2%, ‘창업할 예정’이 2.1%,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예정’이 3.0%, ‘취업과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2.3%로, 전체 응답자의 35.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7.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관 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대개 순수진학형의 진로설정 유형이 4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업형이 35.6%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직업형 아르바이트와 부업형 아르바이트의 진로 설정유형은 각각 3.0%, 1.6%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진로를 아직 설정하지 못한 경우는 7.5%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뚜렷한 진로설정을 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33> 소속 기관 교육과정 이수 후 향후 진로(단위: 빈도, %)

구분	
다시 학교로 복귀하겠다	115(14.9)
대안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32(4.2)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140(18.2)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45(5.8)
다른 학교로 편입학할 예정이다	3(0.4)
해외유학을 떠날 생각이다	14(1.8)
취업은 하지 않고, 한 개 이상의 파트타임·아르바이트와 진학을 병행할 생각이다	12(1.6)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한 개 이상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생각이다	23(3.0)
취업할 예정이다	217(28.2)
창업할 예정이다	16(2.1)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예정이다 (방통고, 방통대 진학)	23(3.0)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 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18(2.3)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58(7.5)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이다	5(0.6)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다	30(3.9)
결혼할 예정이다	4(0.5)
기타	15(1.9)
합계	770(100.0)

<표 IV-34> 소속 기관별 향후 진로(단위: 빈도, %)

		현재 소속 기관					
		대안학 교	직업훈 련기관	쉼터	소년원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소속 기관수 출 업 향후 진로	다시 학교로 복귀하겠다	15(5.9)	8(4.8)	12(25.5)	69(26.6)	11(26.8)	$\chi^2 =$ 246.780 ***
	대안학교에 들어가겠다	16(6.3)		4(8.5)	11(4.2)	1(2.4)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97(38.0)	32(19.0)	1(2.1)	9(3.5)	1(2.4)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에 들어갈 생각이다	12(4.7)	9(5.4)	4(8.5)	18(6.9)	2(4.9)	
	다른 학교로 편입학할 예정이다		1(0.6)	1(2.1)	1(0.4)		
	해외유학을 떠날 생각이다	8(3.1)	3(1.8)		2(0.8)	1(2.4)	
	취업은 하지 않고, 한개 이 상의파트타임,아르바이트와 진학을 병행할 생각이다	3(1.2)	3(1.8)	1(2.1)	4(1.5)	1(2.4)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한 개 이상의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생각이다	6(2.4)	3(1.8)	3(6.4)	9(3.5)	2(4.9)	
	취업할 예정이다	42(16.5)	68(40.5)	14(29.8)	78(30.1)	15(36.6)	
	창업할 예정이다	4(1.6)	4(2.4)		7(2.7)	1(2.4)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예정이다(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진학 등)	4(1.6)	10(6.0)	2(4.3)	7(2.7)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3(1.2)		2(4.3)	12(4.6)	1(2.4)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26(10.2)	10(6.0)	1(2.1)	17(6.6)	4(9.8)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이다	3(1.2)		1(2.1)	1(0.4)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다	9(3.5)	11(6.5)		9(3.5)	1(2.4)	
결혼할 예정이다	1(0.4)	2(1.2)		1(0.4)			
기타	6(2.4)	4(2.4)	1(2.1)	4(1.5)			
합계		255 (100.0)	168 (100.0)	47 (100.0)	259 (100.0)	41 (100.0)	

$\chi^2 = 246.780$

* p < .05, **p < .01, ***p < .001

2) 진로준비

진학형으로 진로를 설정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진학하려는 주요 이유로는 '더 많은 지식을 배워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로 응답한 사람이 38.9%,

‘좋은 직업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5%,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으므로’라고 응답한 사람이 14.5%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이 진학을 위해 현재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자격증 취득이 34.4%, 학교수업이 32.8%, 학원 수강이 6.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IV-35> 진학하려는 이유(단위: 빈도, %)

구분	
더 많은 지식을 배워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121(38.9)
좋은 직업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73(23.5)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8(2.6)
좋은 친구들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	9(2.9)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으므로	45(14.5)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24(7.7)
남들도 다 가니까	4(1.3)
당장 취업하려니 엄두가 안나서 (취업시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1(0.3)
특별한 이유 없음	11(3.5)
기타	15(4.8)
합계	311(100.0)

<표 IV-36> 진학을 위한 중점사항(단위: 빈도, %)

구분	
학교 수업	99(32.8)
학원 수강	18(6.0)
과외	10(3.3)
자격증 취득	104(34.4)
경시대회 참가	5(1.7)
봉사활동	2(0.7)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음	52(17.2)
기타	12(4.0)
합계	302(100.0)

그리고, 직업형 아르바이트 형태의 진로를 설정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려는 주된 이유로는 '하나의 조직의 통제에 얽매이기 싫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3.3%, '하나의 직업보다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가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많아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0.0%, '취업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0.0%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일본의 프리터와 비슷한 진로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7>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려는 이유(단위: 빈도, %)

구분	
하나의 직업보다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가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3(20.0)
하나의 조직의 통제에 얽매이기 싫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싶다	8(53.3)
취업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3(20.0)
기타	1(6.7)
합계	15(100.0)

취업형 진로를 설정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이유는 '돈을 일찍 벌고 싶어서'가 36.7%,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가 22.8%, '나이로 봐서 진학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4.0%, '상급학교에 진학할 실력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7%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가 학업중단 청소년이 취업형으로 진로를 설정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8> 취업(창업)을 원하는 이유(단위: 빈도, %)

구분	
상급학교에 진학할 실력이 되지 않아서	23(10.7)
검정고시 등 진학절차가 번거로워서	11(5.1)
나으로 봐서 진학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30(14.0)
가정의 경제적 곤란으로	14(6.5)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49(22.8)
돈을 일찍 벌고 싶어서	79(36.7)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1(0.5)
결혼할 배우자가 있어서	1(0.5)
기타	7(3.3)
합계	215(100.0)

이들이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시하는 점으로는 적성(28.9%), 임금(20.9%), 전망(15.3%), 안정성(11.9%), 시간적 여유(11.5%)의 순으로 나타나 있으며,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점으로는 적성과악의 어려움(22.0%), 취업정보 부족(21.6%), 학력이 맞지 않아서(17.4%)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직업적성검사(51.5%), 면접훈련(30.3%), 상담(42.0%, 19.9%), 취업박람회(18.6%), 이력서 제출(25.1%), 구직정보 인터넷 게재(22.7%), 취업부탁(50.3%), 직업훈련(36.5%), 현장실습(27.5%), 자격증 획득(23.9%) 등의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직업(단위: 빈도, %)

구분	
통역	2(1.5)
자격증	1(0.7)
호프집	1(0.7)
인테리어	2(1.5)
경찰	2(1.5)
헤어 디자이너	9(6.7)
경호원	2(1.5)
사업	2(1.5)
건설컨설팅	1(0.7)
회사원	4(3.0)
기계기술자	10(7.5)
요리사	2(1.5)
태권도 선교	1(0.7)
꽃집	1(0.7)
컴퓨터 관련업	9(6.7)
생산직	4(3.0)
카메라 보조	3(2.2)
자동차 정비사	15(11.2)
음식집	4(3.0)
제과·제빵	1(0.7)
애견 센터	2(1.5)
전자출판사	2(1.5)
전자상거래	1(0.7)
미술	1(0.7)
이벤트회사	1(0.7)
피자가게	1(0.7)
건축업	1(0.7)
백화점	1(0.7)
유통업	1(0.7)
만화가	1(0.7)
동대문 옷장사	3(2.2)
주유소	1(0.7)
내 적성에 맞는 일	1(0.7)
전기·전자 회사	6(4.5)
서비스업	1(0.7)
화학회사	1(0.7)
검정고시	1(0.7)
용접	1(0.7)
영업	1(0.7)
통신	11(8.2)
보일러	2(1.5)
카페	1(0.7)
합계	134(100.0)

<표 IV-40>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시하는 점(단위: 빈도, %)

구분	
임금	49(20.9)
안정성	28(11.9)
시간적 여유	27(11.5)
적성	68(28.9)
근무환경	12(5.1)
전망(유망한 정도)	36(15.3)
전공과의 관련성	11(4.7)
기타	4(1.7)
합계	215(100.0)

<표 IV-41> 직업선택시 어려운 점(단위: 빈도, %)

	첫 번째	두 번째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47(21.6)	12(6.5)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48(22.0)	12(6.5)
연줄이 없어서	7(3.2)	11(5.9)
여자이기 때문에	12(5.5)	4(2.2)
학력이 맞지 않아서	38(17.4)	19(10.3)
기능(자격증 등)이 많지 않아서	10(4.6)	13(7.0)
경력이 없어서	30(13.8)	50(27.0)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0(0)	8(4.3)
임금이 맞지 않아서	9(4.1)	25(13.5)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10(4.6)	23(12.4)
기타	7(3.2)	8(4.3)
합계	218(100.0)	185(100.0)

<표 IV-42> 취업에 대한 노력(단위: 빈도, %)

	한 적이 있다	한 적이 없다	합계
직업적성·흥미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100(51.5)	94(48.5)	194(100.0)
면접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다	57(30.3)	131(69.7)	188(100.0)
소속기관에서 상담선생님과 의논해 본적이 있다	79(42.0)	109(58.0)	188(100.0)
공공취업알선 기관의 상담원과 상담해본 적이 있다	37(19.9)	149(80.1)	186(100.0)
취업박람회 참여해 본적이 있다	35(18.6)	153(81.4)	188(100.0)
회사에 이력서를 내본 적이 있다	47(25.1)	140(74.9)	187(100.0)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다	42(22.7)	143(77.3)	185(100.0)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적이 있다	96(50.3)	95(49.7)	191(100.0)
직업훈련(학원수강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	70(36.5)	122(63.5)	192(100.0)
현장실습을 나가 직접 직업생활을 체험한 적이 있다	52(27.5)	137(72.5)	189(100.0)
취업에 대비해서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45(23.9)	143(76.1)	188(100.0)

그리고, 이들 중,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인정직업훈련원이 18.3%, 공공직업훈련기관이 14.5%, 통신교육훈련이 12.2%,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이 7.6%, 사업체 부설기관이 6.1%, 사설학원이 6.1%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원하는 직업훈련 기간으로는 6개월-1년미만이 가장 많은 34.4%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년-2년미만이 21.6%, 3개월미만이 20.8%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선호하는 직업훈련의 형태로는 훈련비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49.2%, 훈련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4.2%로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73.4%의 청소년들이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세부적인 목적으로는 자격증 취득이 41.3%, 취업이 32.5%, 창업이 21.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IV-43> 직업 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야(단위: 빈도, %)

	첫 번째	두 번째
농·림·어업, 광업분야(과수재배, 목재가공, 수산양식 등)	2(1.7)	3(2.7)
섬유분야(섬유가공, 편물, 염색, 의복제도, 섬유디자인, 섬유기계보전 등)	5(4.1)	2(1.8)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화학제품 제조, 도자기 제조, 위험물 취급 등)	6(5.0)	4(3.6)
금속분야(금속가공, 열처리 등)	2(1.7)	5(4.5)
기계·장비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18(14.9)	5(4.5)
건설분야(토목, 건축, 도배, 미장 등)	3(2.5)	5(4.5)
전기·전자 분야(기계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8(6.6)	7(6.4)
컴퓨터·정보, 통신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장비 운용 등)	31(25.6)	11(10.0)
서비스 분야(음식 조리,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24(19.8)	13(11.8)
업무관리분야(재무·경영, 생산 사무, 사무지원 등)	2(1.7)	9(8.2)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1(0.8)	7(6.4)
운송장비 제조 분야(자동차, 조선, 항공장비 제조 등)	3(2.5)	3(2.7)
산업응용분야(인쇄·출판, 가구 등 디자인 개발, 광학분야 등)	1(0.8)	2(1.8)
공예분야(귀금속, 가구, 자수, 도장 등)		4(3.6)
금융·보험 및 환경 분야		1(0.9)
어학분야		
예능계(음악, 미술, 디자인 등)	9(7.4)	14(12.7)
체능계(에어로빅, 발레 등)	1(0.8)	6(5.5)
기타	5(4.1)	9(8.2)
합계	121(100.0)	110(100.0)

<표 IV-44> 원하는 직업훈련 기관(단위: 빈도, %)

구분	
사설학원	8(6.1)
인정직업훈련원(민간직업전문학교 등)	24(18.3)
공공직업훈련기관(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기능대학 등)	19(14.5)
사업체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체 부설기관	8(6.1)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10(7.6)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생산성 본부, 표준협회 등)	3(2.3)
복지관, 구청	4(3.1)
통신교육 기관(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TV, 유선방송 등)	16(12.2)
기타	5(3.8)
잘 모르겠다	34(26.0)
합계	131(100.0)

<표 IV-45> 원하는 직업훈련 기간(단위: 빈도, %)

구분	
3개월 미만	26(20.8)
3개월~6개월 미만	13(10.4)
6개월~1년 미만	43(34.4)
1년~2년 미만	27(21.6)
2년 미만	16(12.8)
합계	125(100.0)

<표 IV-46> 원하는 직업훈련의 지원형태(단위: 빈도, %)

구분	
훈련비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	61(49.2)
훈련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	30(24.2)
전액 개인부담의 교육훈련	13(10.5)
기업체가 훈련비를 부담하는 교육훈련	13(10.5)
기타	7(5.6)
합계	124(100.0)

<표 IV-47> 직업훈련의 목적(단위: 빈도, %)

구분	
창업을 위해	27(21.4)
(재)취업을 위해	41(32.5)
자격증 취득을 위해	52(41.3)
기타	6(4.8)
합계	126(100.0)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아직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6.0%로 가장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아직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2.0%로 나타났다. 그 외, 직업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10.0%, 아직 진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단위: 빈도, %)

구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18(36.0)
직업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	5(10.0)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아직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	16(32.0)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4(8.0)
아직 진로에 관심이 없다	5(10.0)
기타	2(4.0)
합계	50(100.0)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와 관련된 진로교육을 받아 본 경험을 살펴보면,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24.3%,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12.9%, 진로관련 적성검사를 받아 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42.8%, 진로관련 상담을 받아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35.0%, 직업생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한 청소년들이 전체의 17.7%, 직업훈련을 받아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2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49> 진로 관련 강연이나 수업 수강 유무
— 학업중단이후 현재까지(단위: 빈도, %)

구분	
없다	512(75.7)
있다	164(24.3)
합계	676(100.0)

<표 IV-50> 수강 만족도(단위: 빈도, %)

구분	
매우 만족	25(9.5)
만족	69(26.2)
보통	142(54.0)
불만족	14(5.3)
매우 불만족	13(4.9)
합계	263(100.0)

<표 IV-51> 소속기관별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 수강 유무(단위: 빈도, %)

		진로 관련 강연이나 수업 수강 유무		합계	
		없다	있다		
현재 소속 기관	대안학교	131(66.2)	67(33.8)	198(100.0)	$\chi^2 =$ 24.030 ***
	직업훈련 기관	108(72.5)	41(27.5)	149(100.0)	
	쉼터	33(73.3)	12(26.7)	45(100.0)	
	소년원	206(83.4)	41(16.6)	247(100.0)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34(91.9)	3(8.1)	37(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IV-52>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유무(단위: 빈도, %)

구분	
없다	572(87.1)
있다	85(12.9)
합계	657(100.0)

<표 IV-53> 활동 만족도(단위: 빈도, %)

구분	
매우 만족	16(9.5)
만족	49(29.2)
보통	89(53.0)
불만족	5(3.0)
매우 불만족	9(5.4)
합계	168(100.0)

<표 IV-54> 소속 기관별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유무(단위: 빈도, %)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유무		합계	
		없다	있다		
현재 소속 기관	대안학교	151(80.7)	36(19.3)	187(100.0)	$\chi^2 = 13.233^*$
	직업훈련 기관	129(89.6)	15(10.4)	144(100.0)	
	쉼터	37(80.4)	9(19.6)	46(100.0)	
	소년원	222(91.0)	22(9.0)	244(100.0)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33(91.7)	3(8.3)	36(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IV-55> 진로관련 적성검사 유무(단위: 빈도, %)

구분	
없다	388(57.2)
있다	290(42.8)
합계	678(100.0)

<표 IV-56> 적성검사 만족도(단위: 빈도, %)

구분	
매우 만족	15(4.2)
만족	96(26.7)
보통	209(58.1)
불만족	23(6.4)
매우 불만족	17(4.7)
합계	360(100.0)

<표 IV-57> 소속 기관별 진로관련 적성검사 유무(단위: 빈도, %)

		진로관련 적성검사 유무		합계	
		없다	있다		
현재 소속 기관	대안학교	95(49.2)	98(50.8)	193(100.0)	$\chi^2 = 29.779^{***}$
	직업훈련 기관	72(48.0)	78(52.0)	150(100.0)	
	쉼터	21(45.7)	25(54.3)	46(100.0)	
	소년원	173(69.5)	76(30.5)	249(100.0)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27(67.5)	13(32.5)	40(100.0)	

* p < .05, **p < .01, ***p < .001

<표 IV-58> 진로관련 상담 유무(단위: 빈도, %)

구분	
없다	442(65.0)
있다	238(35.0)
합계	680(100.0)

<표 IV-59> 상담 만족도(단위: 빈도, %)

구분	
매우 만족	16(5.6)
만족	91(31.6)
보통	164(56.9)
불만족	8(2.8)
매우 불만족	9(3.1)
합계	288(100.0)

<표 IV-60> 소속 기관별 진로관련 상담 유무(단위: 빈도, %)

		진로관련 상담 유무		합계	
		없다	있다		
현재 소속 기관	대안학교	112(55.4)	90(44.6)	202(100.0)	$\chi^2 = 43.876$ ***
	직업훈련 기관	94(63.5)	54(36.5)	148(100.0)	
	쉼터	16(36.4)	28(63.6)	44(100.0)	
	소년원	187(75.4)	61(24.6)	248(100.0)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33(86.8)	5(13.2)	38(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IV-61> 직업생활 직접체험 프로그램 체험 유무(단위: 빈도, %)

구분	
없다	553(82.3)
있다	119(17.7)
합계	672(100.0)

<표 IV-62> 프로그램 체험 만족도(단위: 빈도, %)

구분	
매우 만족	16(9.8)
만족	50(30.5)
보통	90(54.9)
불만족	3(1.8)
매우 불만족	5(3.0)
합계	164(100.0)

<표 IV-63> 소속 기관별 직업생활 직접체험 프로그램 체험 유무
(단위: 빈도, %)

		직업생활 직접체험 프로그램 체험 유무		합계	
		없다	있다		
현재 소속 기관	대안학교	153(77.3)	45(22.7)	198(100.0)	$\chi^2 = 5.447$
	직업훈련 기관	123(83.1)	25(16.9)	148(100.0)	
	쉼터	37(86.0)	6(14.0)	43(100.0)	
	소년원	209(85.3)	36(14.7)	245(100.0)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31(81.6)	7(18.4)	38(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IV-64> 직업훈련(학원포함) 유무(단위: 빈도, %)

구분	
없다	512(76.1)
있다	161(23.9)
합계	673(100.0)

<표 IV-65> 직업훈련 만족도(단위: 빈도, %)

구분	
매우 만족	23(10.6)
만족	77(35.3)
보통	108(49.5)
불만족	4(1.8)
매우 불만족	6(2.8)
합계	218(100.0)

<표 IV-66> 소속 기관별 직업 훈련(학원 포함) 유무(단위: 빈도, %)

		직업 훈련(학원 포함) 유무		합계	
		없다	있다		
현재 소속 기관	대안학교	164(83.2)	33(16.8)	197(100.0)	$\chi^2 = 127.380$ ***
	직업훈련 기관	60(41.1)	86(58.9)	146(100.0)	
	쉼터	36(81.8)	8(18.2)	44(100.0)	
	소년원	216(87.8)	30(12.2)	246(100.0)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36(90.0)	4(10.0)	40(100.0)	

* $p < .05$, ** $p < .01$, *** $p < .001$

나. 기관 비소속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1) 진로설정

한편,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과 관련된 면접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설정을 진학 쪽으로 설정해 놓은 쪽이 우세하다.

고2때 보다 나은 진로를 찾아 학교를 자퇴한 여진은 일본 유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다. 일본에서 다니고 싶은 학교를 정해놓고 관심있는 과도 이미 정하였다. 현재의 생활은 그 계획에 맞추어 준비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미 8월에 고졸 검정고시를 보았고, 현재는 어학을 준비하고 있다.

면담자: 일본에서 학교 입학은 언제 하나요?

여진: 내년 4월이요.

면담자: 일본에서 다닐 학교는 대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여진: 내년 4월에 랭귀지 코스를 먼저하고, 교토조형예술 대학으로 가려고요. 인테리어 관련학과요....지금은 학원 다니면서 일본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면담자: 일본어 학원 다니시고, 일본어 수업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해요?

여진: 2시간 10분 정도 해요.

진로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경우 자신의 하루 일과도 그에 맞게 구성되어진다. 어학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일본의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주요 일상이다.

여진: 요즘은 일본어 시험 준비 해요. JPT 있고요, JAPT가 있는데, 그 둘 다 보려구요....보통 8-9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일본에 가려고 일본 관련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 검색하고 그래요.

현: 일본 현지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일본어가 상당한 수준이겠네요?

여진: 그건 아니고요. 한문을 보고 알아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준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자격증 몇 개를 땀쥔.

현: 어떤거요?

여진: 워드프로세서, 한문 자격증이랑 펜글씨요. 그냥 보면서 마구잡이로 땀쥔.

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따셨네요.

여진: 예.

현: 그 자격증은 어떻게 따게 되었어요?

여진: 시간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요. 뭐 하나 따고 나면 또 다른거 공부 시작해서 하나 따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 맞는 거 또 하나 따고 그런식이었어요.

한편 국내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및 학과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에 맞춰 자신의 생활을 조직하는 청소년도 있다. 국내의 한 대학 회화과를 준비하고 있는 수홍은 꾸준히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고 대입을 위한 수능도 준비하고 있다. 4월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다고 한다. 집은 일산이지만 홍대 근처에 있는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다. 학원에 다닌 지는 2년 이상이 되었으며, 집근처의 학원에서 작년 3월에 홍대 근처로 옮겼다고 한다. 학원비는 엄마가 내주고 있으며, 대학 졸업후 취업 방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면담자: 그러면 학교 나와서 취업할 때 어느 쪽으로 하고 싶어요?

수홍: 과를 지금 회화과랑 의상 디자인 쪽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화과로 간다면 학원 선생님 쪽으로 할 거 같은데요.

수홍: 앞으로 수능 준비도 그렇고 해서 홍대 앞 고시원쪽으로 가야될 거 같아서 피아노는 그만 뒀어요. 수능이랑 실기 시험 끝나면 다시 다니려구요.

면담자: 홍대 앞 고시원으로 가서서 수능 준비하려고요? 수능 공부는 특별하게 하고 계신 건 없나요?

수홍: 얼마 전까지 일산에서 주말반 단과 다녔는데요, 미술 학원 특강이 토요일까지 나가야되서 2달 정도 안 갔어요.

면담자: 단과 학원은 몇 개월 정도 다녔어요?

수홍: 지속적으로 다니지는 않았고요, 1달, 2달 완성 반 같은 거 다녔어요.

과목별로요. 처음에는 과학과 수학 들었는데, 미술 전공하면 그거는 수능에서 안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탐구랑 국어 들었어요.

자신의 진로를 가업 계승으로 잡고 있는 청소년도 있다. 부모님이 섬유공장을 하는 은옥은 자신이 이 가업을 계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가끔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기도 한다. 그러나 가업을 계승하더라도 대학 진학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대학 진학시 전공과 직업 관련 연관성을 생각하기 보다는 대학 졸업장이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더 두고 있다.

면담자: 은옥 양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은옥: 전 그냥 아빠 회사 물려받으려고요.

면담자: 아빠 무슨 회사 하시는데요?

은옥: 섬유 공장 하세요.

면담자: 아빠가 회사를 은옥 양한테 물려준대요? 오빠한테 물려주면 어떡하려고?

은옥: 아빠가 그거 저 주신대요. 오빠가 하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면담자: 그런데 회사를 당장 물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없어요?

은옥: 저도 동대문 가서 샘플 같은 거 알아보고, 아빠 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면담자: 검정고시 합격하고 나서 대학가고 싶어요? 아빠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은옥: 대학가야죠.

면담자: 무슨 과로요?

은옥: 경영 정보요.

면담자: 그러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아빠 회사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은옥: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죠.

면담자: 왜요?

은옥: 엄마, 아빠도 대학 나오셨으니까 저도 나와야죠. 부모님이 좀 고지식 하세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비록 자신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대학교는 꼭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로 설정에 있어서도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함께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청소년기 자체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고 이전에 가졌던 관심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변화가능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던 경준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 학업을 중단한 큰 이유였던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지금 현재는 별로 없다고 한다. 이러한 관심은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에서 향후 대학에 진학하여 발전시키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관련 학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관심사는 가변적인 것이며 하나를 향해 일관되게 정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면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기도 한다.

면담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뭐 하시고 계신 거 없어요?

경준: 없는데요.

면담자: 컴퓨터는 지금도 관심은 계속 있으신 거예요?

경준: 지금은 관심 별로 없어졌어요. 대학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려고요.

면담자: 대학도 컴퓨터 관련 학과로 가실 거예요?

경준: 아니요, 경영학과 갈려고요.

면담자: 컴퓨터에 관심 있으면서 왜 경영학과 가시려고요?

경준: 컴퓨터는 요즘 또 재미가 없어졌어요.

면담자: 경영학과는 어떤 계기로 가시고 싶은거예요?

경준: 사업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면담자: 그러면 혹시 대학 안 가고, 지금 바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보고 싶지는 않나요?

경준: 예, 대학은 나와야죠.

면담자: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경준: 열심히 해서 대학가라고 그러죠.

면담자: 경영학과 나와서 어떤 사업하고 싶어요?

경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요. 인터넷 비즈니스 같은 거요. 포털 사이트 만들고 싶어요.

면담자: 취업도 아니고 굳이 창업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경준: 누구한테 명령받는 것도 싫고 해서요.

결국 경준의 경영학과로의 대학 진학과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이라는 장래 계획으로 모아지게 된다.

장래의 직업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진학 준비를 하는 청소년도 있다. 장래 직업을 요리사로 설정한 헤리는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관련 자격증을 따고 대학도 진학하려 한다고 밝힌다. 또한 요리사 준비를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요리사로 진로 설정을 하기 전에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헤리: 원래 가수가 되고 싶어서 기획사에 오디션을 봐서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중졸이니까 계속 하기가 그랬어요. 또 아빠가 아직은 중졸이니까 공부를 우선 끝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를 했죠.

면담자: 그래도 계속 가수가 되고는 싶은 거죠?

헤리: 아니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요.

면담자: 어떤 일 하면서요?

헤리: 요리사나 영어 공부 같은 거 하면서요.

면담자: 요리사는 왜 하고 싶어요?

헤리: 그건 제가 원래부터 꿈이었어요. 가수는 최근에 제 친구가 저보고 노래 잘 부른다고 오디션 한번 보라고 해서 그냥 본 거 뿐이에요. 친구랑 같이 갔다가 우연히 붙은 거죠.

면담자: 그럼 요리사는 어떻게 관심 갖게 되었어요?

헤리: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내년에 검정고시 붙으면 요리학원도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대학교 들어가려고요.

면담자: 대학교도 요리관련 학과로 가고 싶어요?

혜리: 요리 관련 학과로 들어가서 부전공으로 영어를 하려고요.

면담자: 지금은 요리 관련해서 학원 같은 건 안 다니시나요?

혜리: 지금은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검정고시 학원만 다니죠.

일부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이나 진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만, 실현 가능성 및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모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구상은 상상으로만 그치고 구체화된 것은 단지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두차례 중퇴한 다룡은 자신의 집을 떠나 수도권 신도시의 친척집에 기거하면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그다지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룡: (하고 싶은 일은) 일단은 CF부터 찍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런 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난 다음,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면담자: 어떤 사무실이요?

다룡: 회사 같은 곳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과외 선생님하고 싶어요. 음악 과외 같은 거요.

면담자: 음악에 관심 있어요?

다룡: 예, 저 판소리했어요.

면담자: 그러면 판소리 쪽으로 계속 하는 건 어때요?

다룡: 돈 많이 들어서 싫어요..... 한 2년 정도 배웠어요. 전라북도 인간 문화재 선생님한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만 뒀어요.

면담자: 지금도 판소리 계속 관심 있어요?

다룡: 가끔 생각은 나지만, 안 할래요. 너무 특이해서 부끄러워요.

면담자: 다룡 양은 검정고시 합격하고 나면 뭐 하실거예요?

다룡: 작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과외 선생님하고 싶어요.

면담자: 다룡 양은 아직 젊고 더 큰 꿈도 많을 텐데, 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다룡: 작은 회사 다니면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큰 회사 차리려고요.

면담자: 검정고시 합격하면 뭐 할 거예요?

다룡: 은옥이랑 같이 방 얻어서 살려고요. 그리고 돈 좀 벌어서 부모님 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 갈비집 서울에 다시 열어서 제가 사장하면서 살고 싶기도 해요.

장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지만 관심있는 직업 분야와 관련된 경험들을 해보고 다양한 진로 설정 가능성을 열어놓는 청소년도 있다. 위의 다룡의 사례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비교적 덜 구체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는 반면 소정의 경우에는 자기 관심분야에 직접 뛰어들어 실습을 해보고 자신의 진로인지 아닌지를 탐색하고 있다. 소정은 학교 중퇴 후 패션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재봉틀을 사서 실습을 해보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였지만, 그 관심은 사그라들고 다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독학으로 컴퓨터에 대한 공부와 조립 실습을 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직업 구상을 하지는 않고 있으며, 계속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소정: 아직 확실히 진로 결정은 아직 못 내렸고요, 어렸을 때부터 패션 디자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그런데, 힘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자퇴하고 나서도 동대문에 있는 프레야 타운에 한 4개월 다녔거든요. 옷만 무조건 만들고 싶어서 아빠한테 재봉틀도 사달라고 그래서 집에 재봉틀도 있어요. 한동안 열심히 했어요. 제가 스타일이 하나 하고 싶으면 막 빠져서 하다가 금새 시들하고 그러거든요.

면담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패션인데, 지금은 잠시 접어둔 상태인거죠?

소정: 컴퓨터에도 관심 있어요. 2월 달에도 부모님 줄라서 컴퓨터 조립했어요. 책보고 독학을 2달 정도 했어요.

면담자: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하고 싶어요?

소정: 대학이 우선 최종 목표예요. 내년에 대입 검정고시 봐야죠.

면담자: 대학은 패션이나 컴퓨터 관련한 과로 가나요?

소정: 그렇게는 생각하는데요. 아직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요.

면담자: 가고 싶은 학교 생각하고 있는게 없나요?

소정: 좋은데 가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2) 진로준비

진로가 설정된 이후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학 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직업 진로 준비를 진학 후로 유보하거나, 잠정적으로 진로 준비를 중단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도 있다.

먼저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일본의 예술대학 유학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 여진의 경우 미술 학원에 다니고 있는 동생을 통하여 실기 기본을 배우고 있다. 일본어 학원을 다니는 외에 검정고시나 미술관련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구한다고 한다.

면담자: 지금 일본어 공부 말고는 인테리어 같은 조형 예술 관련해서 공부
는 안하고 있어요?

여진: 전문 기관이 딱히 없어서요. 미술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인테리어는
데생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하길래 데생 연습만 잠깐씩하고 있어요.

면담자: 미술학원 다닌 적은 없어요?

여진: 예, 없어요. 동생이 미술을 하고 있어서요, 저까지 다니면 돈이 많이
들까봐요. 동생이 기본적인 데생 같은 거 가르쳐줘요. 주로 집안에서 다 해
결하죠. 공부도 독학으로 하고.

면담자: 검정고시, 인테리어, 일본어 관련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
어요?

여진: 인터넷에 보면 검정고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예상 문제나 기출 문
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보고요. 한국교육평가원 사이트에도 기출 문제
가 있고, 카페 자료실에도 자료가 있고요.

학업 중단 후 패션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소정은 수업료가 비교적
저렴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찾아갔지만 배우는 과정에 실망이 컸다고 한
다. 체계적으로 옷 만드는 일을 배우려고 했지만 수업 과정이 부실해서 4개
월 과정을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대안교육기관을 찾아가기

전 한달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는 패션 학원에 몇 달 다닌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의 직업 훈련이 더 부실하게 느껴졌을 것이라 보여진다.

소정: 하자 센터에도 옷 배우려고 잠깐 다녔고요. 옷 배우는 데 4개월 과정에 3만원이어서, 싸다 싶어서 바로 등록했어요. 그런데, 너무 부실했어요.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제가 처음에 하자센터를 TV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영등포까지 찾아가서 등록하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언니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곳은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었나봐요. 일반 사람들도 많았어요. 선생님은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재봉틀 같은 것도 그냥 해보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면담자: 4개월 과정 다 마쳤어요?

소정: 아니요, 며칠 나갔어요.

또 학교를 그만 둔 뒤 가족의 권유로 또 다른 대안교육기관을 다니게 되었지만 학교의 구성원 특성과 교육과정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그만 두었다고 한다.

면담자: 또 씨앗학교도 다녔다고요? 거기는 어떻게 알고 갔어요?

소정: 언니가 저 집에서 혼자 있는 거 싫어하니까, 인터넷으로 막 알아서 찾아왔어요. 전 대안학교 가봤자 뭐가 좋겠냐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처음 자퇴했을 때는 대안학교 같은 것은 생각도 안하고 그랬는데, 또 고등학교 자퇴하니까, 아빠가 예전처럼 학교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 생각하지 말라고 어디라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알아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언니가 찾아줘서 은평 씨앗학교에 갔어요.

면담자: 씨앗학교에서는 뭐 배워요?

소정: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현실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요.

면담자: 어떤 점이요?

소정: 국어, 수학이랑 과목이 다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공부하는 분위기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2-3일 가고 안 갔죠. 그런데 이번 해에 다시 가게 되어서요, 2달을 꼬박 꼬박 다녔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6시부터 수업인데요, 5시까지 학교에 가서 공동밥상제라는 게 있어

서 밥을 같이 먹고, 6에서 9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잘 다녀야지 했는데, 학생이 저까지 합해서 4명이고, 선생님은 18명이었어요. 학생 4명 중에 두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20살이고, 한 명은 저보다 어리고요, 나머지 한 명은 남자아이였는데, 그 친구는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하겠다고 그랬어요.

결국 학업 중단 이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준비를 위해서 찾아갔던 기관이나 공부를 위해 찾아갔던 대안교육기관 모두 소정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관심분야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양한 청소년들은 일단 직업과 관련된 진로 준비보다는 진학 준비를 우선시 하고 있다. 진학을 위해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거나 혼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되나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진학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로 학교를 그만둔 지 얼마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진학준비기관이나 관심분야를 정하지 못한 채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를 그만둔지 4개월 정도 된 수연의 경우 요리에 관심이 있지만 이것을 위해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단지 인터넷 카페에 드나들면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막연하게 대학 진학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검정고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검정고시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고 동영상 강의를 세차례 정도 들었다고 한다.

수연: (관심있는 취업분야는) 요리요.

면담자: 학교에서는 요리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전혀 도움이 안되서 학교를 그만 두게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학교 그만 두고 요리 학원은 다니지 않아요?

수연: 다니다가 학교 입학하면서 시간이 안되서 그만 뒀어요.

면담자: 학교 다니기 전에 요리 학원 다니다가 학교 다니면서 그만 둔 거예요? 요리학원은 얼마나 다녔어요?

수연: 2-3달이요.

면담자: 요리사 자격증 같은거 따고 싶어요? 그럼 꿈이 요리사예요?

수연: 예.

면담자: 요리사 같은 거 되고 싶은데, 요리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하는지 누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있어요?

수연: 학원 밖에는 없었어요.

면담자: 그럼 내가 요리사 되는데 도움을 얻을 만한 정보 같은 건 못 구하셨나요?

수연: 인터넷 카페도 있고요. 다음 카페요.

면담자: 그곳은 학교를 그만두고 요리쪽으로 관심있는 학생들이 가입하나요?

수연: 아니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일반 카페예요.

면담자: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대요?

수연: 요즘 아이들이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취업이 안되면 가게를 차려도 되니까요.

면담자: 음식 만들면 맛있다고들 해요?

수연: 예. 책 같은 거 보면서 만들어요.

면담자: 뭐 만들 줄 알아요? 라면? 찌개 같은거요?

수연: 찌개 한번 끓여봤어요. 된장찌개요.

이처럼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관심이나 진학과 관련하여 개인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업 진로 설정이 확실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학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정부의 취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가)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차별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학교 밖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왜 안 가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싫다고 답한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 외에도 학생이었을 때는 겪지 않았던 사회

적, 경제적 차별을 겪기도 한다. 학생 신분에서는 각종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비학생 신분으로 바뀌면서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서비스 이용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공중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론화 됨으로써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진: 저도 학교 그만두기 전에는 잘 몰랐던 건데요. 요즘 청소년 할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학생과 비학생이 차별 받는다는 사실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학교를 그만두고 나니까 그런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고 그러니까 많이 나아진 거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어른들이 저희들을 보는 시선은 틀리죠.

혜리: 버스카드요. 학생이 아니면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버스 같은 거 탈 때 청소년이 아니라 학생이라고 써져 있어서 어른 요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영화관 같은데도 할인을 못 받으니까 그게 불이익이죠....인천에는 할인을 벌써 시작했다고 하던데, 성남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너무 불편해요. 하다 못해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가니까 학생 아니라고 할인도 안 해줘서 남들보다 돈도 많이 내요.

면담자: 미용실에서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나요?

혜리: 어떤 곳은 그냥 말만하면 해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학생증 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이나 점심 시간에 머리를 자르러 가면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거기 있으니까 학생이 맞냐고 물어 보거나 학생증 보자고 그러죠....전 단지 학생증 말고 청소년증 빨리 나와서 청소년 할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버스 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동생 걸 쓰고 싶기도 한데, 초등학생이어서 학생증이 아직 없어요.

수홍: 아르바이트 할 때 친구들이 다 같이 어려서요 사회적 대우 같은 건 힘들지 않았는데요. 버스 탈 때 학생 요금을 내고 싶은데, 학교 있을 시간에 학생 요금 내고 탈수도 없고, 어른 요금이랑 똑같이 내고 타는 것이 싫죠.

다롱: 저 버스 요금 300원인데 600원 내요. 일산 지역에서 다니는 버스거든요. 할인이 안되요. 학생만 되구요.

면담자: 그러면 청소년증 발급되면 좋겠네요?

다롱: 좋죠. 저 지금 통장도 못 만들어요. 어디를 가나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는데, 민증도 아직 안 나왔고, 학생증도 없어서 불편해요.

나) 취업에 대한 우려

또한 학업 중단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취업시에 겪게 될 차별대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들의 공통적 인식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취업시 불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대학은 꼭 가야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취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여진: 학교 그만두기 전에는 못 듣고,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은건데요. 취업하려고 원서 내면 검정고시 본 사람은 원서를 제일 뒤로 넘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부당한 차별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면담자: 고등학교 그만 두고 직업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주변에 없어요?

수연: 예. 아직요.

면담자: 대학교를 안 나오고 취업만 하면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연: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서요.

면담자: 혹시 주위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혜리: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중졸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우리나라에서 가방끈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거죠.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의견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진로 설정이나 준비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나 종합지원대책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대부분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심지어 한 청소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기 길을 찾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일부 청소년들은 종합지원센터나 대책 등의 필요성보다는 사회적 차별대우, 즉 학업중퇴자나 검정고시출신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전반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일반 학생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할인 제도가 비학생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기본적인 직업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영어와 컴퓨터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듯하며, 종합 지원센터와 같은 것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는 다소 막연하게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면담자: 혹시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로부터 바라는 점은 없나요?

경준: 따로 차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불이익도 주고 그러던데....청소년 할인 그것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바라고, 불편해 해요. 학생증 없다고 극장이나, 버스 할인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영어나 컴퓨터 같은 거 가르쳐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짜는 아니더라도, 좀싼 곳이에요.

면담자: 그럼, 아이들이 학교 그만두고, 딱히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없어서 집에서 인터넷만 뒹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요?

경준: 좋겠죠. 정보도 주고.

라) 보조금 지원

정부에서 직접 직업 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청소년들이 학원 등을 다닐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를 바라는 청소년들도 있다.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 요리, 미용, 미술, 컴퓨터, 패션 등의 학원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원 수강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반면, 대안교육시설의 직업훈련 과정은 일반 학원에 비해 부실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일반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조금 등을 지급해 주었으

면 좋겠다는 의견을 편다.

면담자: 헤리 양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나라에서 이런 쪽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어요?

헤리: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형편이 안 좋거나, 학원 말고도 다른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급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 인터넷 정보 제공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고 있고 특히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홈페이지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종합지원센터 등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헤리: 제 생각에는 정말로 적극적인 아이들이 아니라면 (종합정보센터) 이런 데는 잘 가지 않을 거 같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요즘 컴퓨터 안 하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인터넷 쪽으로 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홈페이지나 카페 같은 걸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카페요. 인터넷은 거리가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쉽게 접속할 수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정보센터 같은 데 잘 안 찾아갈 거 같아요. 우선 나라에서 그런 거 좀 만들어서 많이 알려지고 나면 건물 같은 것도 세워도 괜찮을 거 같아요.

수홍: 제 생각에는 학교가 변했으면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요즘 자퇴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위한 사이트 인터넷에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퇴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지되었어요. 홈페이지 주인은 작년에 중학생이었는데, 학교 그만 두고 자퇴생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좋은 취지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정부에서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죠.

바) 지원 불필요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없다거나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진로 준비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반응이었지만, 면담 청소년들 중 대부분은 비학생 청소년 할인 제도에 대한 이슈가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타고 대중화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진로 준비나 진로 탐색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 자체에 대한 대중적 이슈화, 담론화가 먼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의 실정은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개인적 네트워크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얻어진 소규모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지원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면담자: 수연이처럼 학교 그만 둔 아이들한테 진로에 도움을 주는 기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해요?

수연: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알아서 하니까, 기관이 굳이 없어도 학원 다니면서 다 배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면담자: 취업이나 취업 경험 같은 거, 소정씨 앞으로의 진로 관련해서 정보를 주는 종합 정보 센터 같은 것을 정부에서 만든다면 어떨까요? 도움이 되겠어요? 두 번 정도 시험도 도전하고 그랬는데, 정부에 뭐 바라는 점 없어요?

소정: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면담자: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힘들었다, 학원비 같은 거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등의 할 얘기 없어요?

소정: 없어요. 그런데 느낌표 '하자하자'에서 말한 청소년증 발급은 언제 해주나요?.

사) 교육제도자체 개선요망

한편,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더 이상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현재의 학교 제도는 변화하는 사회와 세대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시 위주의 틀에 짜인 생활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수홍: 학교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학교를 다니면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좀 바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로는 안되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지위가 굉장히 약해요. 선생님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고, 막말로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죠. 공부 밖에 하는 게 없죠. 새벽부터 잠잘 때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도 그것 밖에 없죠. 자기네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이 대부분이고, 자기 반이 공부를 잘하는 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전 학교부터 바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학교 그만둔 친구들 도와주는 것 보다 저희 같은 자퇴생이 안 나오도록 해야겠죠.

V.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가.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매년 전체 재학생의 약 1.8%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향후 사회구성의 취약계층적 집단화 되는 것을 막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경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쉼터, 기타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과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둘로 크게 나뉘, 그들의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이후의 불완전 근로경험,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실태 등에 대해 경험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방법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대안학교(학력인정 학교/비인정 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선도보호시설 등의 청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나 시설의 학업중단 청소년들(비진학 청소년 제외)이며, 전체적인 표집틀을 작성한 후,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가장 정교한 표집방법인 할당 표집(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조사는 2003년 7월 8일에서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집단면접에 의한 자기보고식(self-reported) 설문조사의 형태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모집단만 존재할 뿐, 표집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질적 면접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면접조사의 표집방법 및 전략으로는 애초에, 이론적 안내에 따라, 대표적 유의표집(representative purposive sampling)의 방법을 원용하여, 진학지향형, 취업지향형, 방임형의 세 유형별로, 각 3명씩 학업중단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학업중단 청소년 특유의 퇴행행위(withdrawl behavior), 즉, 사람을 만나기를 무척이나 꺼려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수행이 불가능하여, 인터넷 사이버 상의 중퇴 청소년들의 모임을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9명을 섭외,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다.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관련 요인으로 학업을 비자발적으로 중단하는 청소년이 과반수가 넘는 51.5%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가정관련 비자발적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정규학교로부터 이탈한 경우가 11.4%로 나타났다. 건강상의 개인적 요인은 전체 6.7%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시장과 관련된 학업중단 요인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요인은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16.3%에 불과한 반면, 과반수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학업중단이후의 불완전 근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후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의 68.8%로, 이러한 수치는 재학생 청소년들의 조사결과인 29.2%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참여가 재학생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가장 큰 이유로는 용돈부족과 생활비 부족 해결이며, 주로 학업중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냈다.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이유는 취업준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근로 여건은 우선, 비교육적이고 유해한 불법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장시간, 고임금의 준 직업적 성격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가운데, 일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재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이러한 부당대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행위에도 무지하거나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면접조사의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 실태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은 크게 첫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직업을 가지려는 '순수 진학형', 둘째, 아르바이트를 갖고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부업형 아르바이트' 유형, 셋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려는 생각도,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아

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는 ‘직업형 아르바이트’, 넷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형’의 네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순수진학형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고, 취업형의 경우가 35.6%의 진로설정 빈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업형 아르바이트의 경우(1.6%)와 직업형 아르바이트의 경우(3.0%)는 미미하다. 한편,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7.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진로설정 및 진로준비와 관련된 진로교육을 받아 본 경험을 살펴보면,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24.3%,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12.9%, 진로관련 적성검사를 받아 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42.8%, 진로관련 상담을 받아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35.0%, 직업생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한 청소년들이 전체의 17.7%, 직업훈련을 받아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2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과 관련된 면접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설정을 진학 쪽으로 설정해 놓은 쪽이 우세하며, 대부분 학원이나 또는 혼자서 자신의 진로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차별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장기적으로 자신이 취업시에 겪게 될 차별대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으며, 사설학원 등의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 보조금 지급을 바라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서로간의 정보교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입시위주의 학교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예방책도 희망하고 있다.

2. 정책제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제도화된 삶의 경로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인 첫발을 내딛는 불완전 근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진로설정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전한 삶의 경로를 살아나가게 하게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한 해에 6만명이 넘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대안적인 삶과 진로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선 재학중인 청소년들은 정상이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비정상적인 것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엄연히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장벽부터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런 정책도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만나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그 동안의 사회적 낙인의 효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며, 위축된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적 인식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인식의 문화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두 측면에서 사회적 인식의 장벽을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문화적인 차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기 나름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비정상성에서 정상성으로 자리잡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만하다.

첫째는 문화관광부 청소년문화과(신설예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칭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스포츠, 문화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그들의 건전한 모

습과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축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둘째는 TV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매체와의 연계¹⁾를 통하여, 혹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전용 매체를 신설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나름의 진로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차원의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증과 청소년전용 할인 카드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이번 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신분적 제약을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각종 공항이나 버스, 문화공연, 영화관람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때이다. 학생증을 제시해야 될 때,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순간적인 경험은 학업중단 청소년 당사자나 일반인 모두의 의식속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하나의 사회적 주변인으로 낙인찍고, 그 낙인을 확대재생산하는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인 불이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증과 청소년 전용 할인 카드제의 전면적인 시행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라는 개념의 주변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상위개념이고, 그 하위개념으로 비학생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이 존재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다.

가. 청소년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 보호방안

첫째,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인 68.8%가 학업중단 이후 부족한 용돈과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즉, 경제적인 문

1) 이 아이디어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은경 박사님과 대화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임.

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지향적이고 준직업적인 성격의 형태로 아르바이트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 있어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말 그대로 부업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인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파트타임의 부업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적자원 및 직업능력개발의, 청소년자립의 시각으로 전환하여 풀 타임의 직업을 얻기 전까지의 직업준비 개념으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는 학계, 관계의 정책담당자, 기타 청소년 관련 시설의 현장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소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이 음식점 서빙이나 배달, 전단지 돌리기, 주유소, 주유원 등의 비교육적이고 제한적인 업종에 종사하거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여관 등, 청소년 보호법에서 고용을 금지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불법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맞게되는 인생의 진로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건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업종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다가 비행이나 범죄의 길로 나아갈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네거티브한 단속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반대로, 우선, 적극적인 방향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가칭,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의 전국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국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관련 시민단체 등을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건전 아르바이트 직종, 장기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장래 희망직업과 관련이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이 개발, 지정, 홍보, 보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친화 업체'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업종을 소개받고 지원하는 구인, 구직 등록의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통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준 직업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에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약 20%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거나,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거나,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거나' 또한, '폭언 등 인격 모독' '구타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임금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스스로 착취와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내에 신고기능까지 함께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불법 고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악용당하는 관련법의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15세미만 청소년 근로금

지조항, 18세미만 부모동의서 비치 조항'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노동시장을 협소화시켜 청소년들의 불법 취업을 초래하는, 악용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조항이므로, 철폐,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본 조사의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원하는 조항이다. 특히, 13세이상 15세 이하 청소년이 일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허가과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취직인허증 제도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무용지물이므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 학교장의 허가를 지금 다니고 있는 대안 학교나 직업훈련원장 등의 허가로 대신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된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등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법 등에 관한 지식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 정도는 보편적으로 생계형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인 보호장치이다. 그러므로,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 조항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역시 앞에서 제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근로교육은 소극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법을 홍보하는 것에 그쳐서만은 안될 것이다. 청소년 근로교육을 직업교육의 차원으로,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택가능한 직업세계를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직업소개 프로그램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드는 오늘날의 아르바이트 현실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설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지원 방안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중학교 중퇴자 혹은 고등학교 중퇴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문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 불투명한 전망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학업중단의 상태로 평생동안 머무른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취업지원정책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취업지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학업중단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서있는 다양한 위치에서 희망하고 있는 취업의 형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취업의 형태는 그들이 가장 희망하는 형태로서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의 정규(전일제 근로) 직업'이다. 비록 학업을 중단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들 대부분은 가능한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욕구(즉, 졸업장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들은 중단된 학업을 마친 후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상급학교과정을 마치고 취업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은 학력에 따라 분절되어 있어,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평생동안 빈곤하게 살 수 밖에 없음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취업의 형태는 '부업형 아르바이트'이다. 최종적으로 첫번째 취업의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중단된 학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독학으로, 또는 학원에서, 또는 대안교육시설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하며,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로 복교하여 학교를 다니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대부분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원한다. 중단된 학업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생활비, 용돈을 충당하면서, 학교에 다닐때 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진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취업의 형태는 '직업형 아르바이트'이다. 학업을 중단한 뒤, 애초부터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욕구가 없거나,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자 노력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저녁늦게 만나 밤늦게까지 놀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한다. 이들은 주로 친구들과 노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체로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한다. 이들은 '부업형 아르바이트' 집단과 달리 거의 매일 출근하고, 일하는 시간도 훨씬 길어 거의 전일제와 같은 성격을 띤다.

네 번째 취업의 형태는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규 직업'이다. 학업을 중단한 뒤, 공공 혹은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직업훈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창업을 하거나 정규 근로의 형태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네가지 형태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 직업의 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단된 학업을 마치도록(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단된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학력인정 대안교육시설로 복교하여 졸업하는 방법, 중퇴한 학교와 비슷한 기존의 공교육 학교로 복교하여 졸업하는 방법,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길을 통하여 중단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학력인정 대안교육시설을 통하여 졸업하는 길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선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안교육활동을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정규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안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곳의 시설, 교육과정, 교사 등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넘는 곳을 학력인정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력인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공교육의 기준과는 시설, 교육과정 등에서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현재의 진로준비상태를 고려하면 앞으로 대안교육시설에서 진로탐색프로그램과 진로상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이에 관련된 항목들을 학력인정 기준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야 한다.

중퇴한 학교와 비슷한 기존의 공교육 학교로 복교하는 경우에는 재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복교생을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반드시 복교전에 적응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감당이 안된다면, 비정규학교에 등록, 졸업한 것을 학업중단 청소년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장을 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정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중학교 중퇴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되었기 때문이다. 행정상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앞으로도 중학교 중퇴청소년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들에게 정규교육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중학교 중퇴청소년들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교육시설이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중학교 중퇴청소년들이 검정고시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면접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검정고시출신이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학업중단 청소년들 사이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정고시 출신이 취업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업형 또는 직업형 아르바이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부업형과 직업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지만, 취업지원방안의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상 청소년노동에 관련한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관련법령은 노동보호를 위해 노동참여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과 동시에 노동보호에 관련된 법령 중 적지 않은 법령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취업의 최저연령은 15세 미만임,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함.

→ 취직인허증제도가 거의 운영실적이 없음. 13세, 14세 청소년들의 취업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노동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 13세, 14세 청소년들의 취업을 보호자의 동의하에 경노동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② 유명무실한 근로감독 관련 법령 및 제도 - 2002년 노동부 현장 지도 점검에서 1,331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는 3건에 불과함.

→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590명에 불과하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도 청소년노동보호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 청소년들이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함

⇒ 청소년노동의 근로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청소년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적인 정부조직과 시민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고용창출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

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의도적으로 고용창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중개해줄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주기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아르바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고용촉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도 벌일 필요가 있다.

셋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직업 형태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이러한 형태로의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소규모 인원으로 반을 편성하고, 교육내용의 난이도를 낮추는 등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과 진로상담이 결합되어야 한다. 훈련을 받기 전에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시작하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적응상 어려운 점에 관한 상담, 그리고 훈련을 종료하고 구직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훈련직종이 개발되어야 한다. 컴퓨터 관련 분야, 요리 관련 분야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도보호시설을 비롯한 대안교육시설에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기능사 자격의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교과과정의 70%만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대안교육시설

에서의 직업훈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중퇴청소년이 복교한 뒤, 곧바로 졸업을 위해 남은 기간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후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면서도 정규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졸업자 학력으로 정규 직업 형태로의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
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 구본용(2001). “학업중퇴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학업중도탈락
과 청소년복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구자경 외(2001). 청소년의 자퇴욕구실태와 관련특성 연구. 서울특별시청소
년종합상담실.
- 구자경, 홍지영, 장유진(2001). “청소년의 자퇴욕구실태와 관련특성 연구”,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서울특별시청
소년종합상담실.
- 권혜자(1996). 경제위기 후 청년고용의 변화와 노동조합 정책과제. 한국노
총 중앙연구원.
-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 문제의 고찰”. 『교육사회학 연구』, 7,
1-24.
- 김규태(2002).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개
발원.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청소
년개발원.
- 김동춘(2001).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삼인.
- 김부태(1997). 한국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 김신일(2003).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 김정아(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기민(1992). 노작교육의 교육적 가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선(1999).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 김홍근(1998). 파트타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맹영임 · 김진호 · 정철영(2001). 중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성정(1986).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창남(2000). 일하는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와 인권증진방안. 일하는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이천 YMCA 2000.
- 박창남(2002).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청소년의 중퇴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백성준, 채창균 외(2001).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2001). 경기도 실업계 고교 학생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도 교육청.
-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2000).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연구. 서울특별시.
- 서울YMCA(2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YMCA진로진학상담실.
- 송광성 외(1992). 정학 · 퇴학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송광성, 구정화, 이명아, 김소희(1992). 정학 · 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송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송복, 손승영, 조혜정, 황창순, 김병관, 정경희(1996). 학업중퇴자 연구 -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

- 협 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995). 학업중퇴자 연구: 실태와 대책.
- 오문환(1997). 단시간 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유성경, 이소래(1998).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II.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유성경, 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윤성한(1995). “실업계 고교생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다”. 『우리교육』 (중등용), 10.
- 윤여각(2002).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 및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윤여각(2002).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 및 실태조사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2001).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림(1999). 실업계고등학생의 중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 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실태 및 정책방안 모색 연구. 문화관광부.
-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일)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3(2),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이광호·맹영임·임성택(2000).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돈희(1998).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서울: 현대문학.
- 이병록(1997). 한국청소년 노동시장 현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병환(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

육.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이혜정(2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 일하는 청소년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소비욕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서울 YMCA.

인권운동사랑방(2002). 청소년 노동실태 보고서.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현장 실천위원회.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나남출판.

장석민(1997). "중퇴생의 예방과 진로선도대책", 『진로교육학회』, 7, 한국진로교육학회.

장석민(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원섭(2000). 청소년 시간제 취업의 진단과 대책. 일하는 청소년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소비욕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서울 YMCA

장원섭(2001). 직업체험의 교육적 의미: 청소년 시간제 취업을 중심으로. 나는 일도 하고싶다. 한국청소년개발원·서울YMCA 공동 세미나 발표집.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 협의회(2001).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시 중도탈락학생을 중심으로. 정교협 교육정책

토론회 논문집.

전경숙(1999).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경숙 외(2002).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II).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한국청소년학회.

조영록, 홍봉선, 남미애, 장수한(1996). 부산지역 중고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연구보고서. 부산광역시.

조영승 외(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기도.

조한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하나의 문화.

조한혜정(2000).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하나의 문화.

조한혜정(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또하나의 문화.

조혜정(1996). "중퇴와 부등교의 사회문화적 맥락", 『학업중퇴자 연구 -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흥식, 김경준, 김경호(1999).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진미석(1999). 일과 학습의 연계를 위한 진로지도 체제 강화. 새교육 공동체위원회.

참여연대 사회인권팀(2002).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 참여연대 알바권리찾기캠페인. 제1차 정책토론회.

채창균(2001).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직업능력개발연구』, 4(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8).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최경수(1997). 단시간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최선미(1998).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지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1995).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 그 과정과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2),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보고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방안*. KRIVET 정책토론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재적응에 관한 연구*.
- 황창순(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2(1), 순천향대학교.
- Astone. N. M., & McLanahan. S. S.(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 Sociological Review*, 56, 309-320.
-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1999).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on School Students. *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 Research Report*, 9,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Barrington. B. L., & Hendricks. B.(1989). Differentiating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graduates, dropouts, and nongraduat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2, 309-319.
- Bickel. R.(1989). Post-high school opportuniti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rates in an appalachian state: A near replication of Florida research. *Youth and Society*, 21, 61-84.
- Bill, D. B., L. B. Helms and M. Ozcan(1995). The impact of student employment on teacher'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working students. *Youth and Society* 27, 169-193.
- Bowlby, Jeffrey W. and Kathryn McMullen(2002). *At a Crossroads: First Results for the 18 to 20-year-old Cohort of the Youth in Transition*

- Surve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and Statistics Canada.
- Bryk. A. S. & Thum. Y. M.(1989). The effects of high school organization on dropping out: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6(3), 353-383.
- Bryk. A. S., Lee. V. E., & Holland. P. B.(1993).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r, R. V., J. D. Wright and C. J. Brody(1996).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69, 66-81.
- D'Amico. R.(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57, 152-164.
- Delgado-Gaitan. C.(1988). The value of conformity: Learning to stay in school.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19, 354-381.
- Diane, C. K., and Forrest, A. D.(1995). Households, local labor markets, and Youth labor force Participation. *Youth and Society*, 26, 463-492.
- Ekstrom. R. B., Goertz. M. E., Pollack. J. M., & Rock. D. A.(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 from a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 356-373.
- ESCAP(1988). *Jakarta lan of Actio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ESCAP Region..* Bangkok: ESCAP.
- Fehrman. P. G., Keith. T. Z., & Reimers.T. M.(1987). Home influence on school learn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high school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0, 330-337.
- Fine. M.(1991). *Framing dropout: Notes on the politics of an urban public high school*.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oldschmidt. R. & Wang. J.(1999). When can schools affect dropout behavior? A longitudinal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4), 715-738.

- Good. C. V.(1973). *Dictionary of Education*, 3rd ed. New York: McGraw-Hill. 198.
- Green, D. L.(1990). High school student employment in social context :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role of part-time work. *Adolescence*, 25, 425-434.
- Greenberger E. & Steinberg L. D.(1986). *When teenage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Y Basic Books.
- Hanh. A., & Danzberger. J.(1987). *Dropouts in America - Enough is known for ac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Educational Leadership.
- Hansen & Jarvis(2000).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A comparison of two employment contexts. *Youth and Society*, 31(4), 417-437.
- Horan, P., & Hargis, P.(1991). Children's work and schooli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family eco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83-596.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2002). *Knowledge Matters: Skills and Learning for Canadians*.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Applied Research Branch(2000). *Youth in Transition Survey: Project Overview*.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Jobs for the Future and John J. Heldrich Center for Workforce Development(2002). *Evaluation of the Transition to Comprehensive Youth Services Under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Prepared for the U.S. Department of Labor/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Office of Youth Opportunities Under Task Order #K-6826-8-00-80-30.
- Kaufman, Phillip and Christopher D.Chapman(2000). *Dropout Rates in the United States: 200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NCES 2002-114.
- Lavoie, Claude and A. Béjaoui(1998). *Youth Employment Situation in Canada: Explanations and Future Outlook*.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Strategic Policy, Applied Research Branch.
- Lee. V. E., & Bryk. A. S.(1989). A multilevel model of the social distribution of high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2, 172-192.
- Lee. V. E., & Smith. J. B.(1993). Effects of school restructuring on the achievement and engagement of middle-grade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66, 164-187.
- Markus et al(1990). The role of the self-system in competence. In: Steinberg R. J. & J. Kolligan(eds). *Competence considered*, 205-226.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cMillen. M. M., Kaufman. P., Hausken. E. G., Bradby. D.(1993). *Dropout rates in the United States: 199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cneal. R. B.(1997). Are students being pulled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 of adolescent employment on dropping out. *Sociology of Education*, 70, 206-220.
- Morrow. G.(1986). Standardizing Practice in the Analysis of School Dropouts. *Teachers College Record*, 87(3), 342-355.
- Mortimer et al(1986).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Borman K & Reisman J (eds). *Becoming a worker*, 66-89, Norwood NJ Albex.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1998). *The condition of education*. Washington, DC: Author.
- Page. G. T. & Thomas. J. B.(1977).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ducation*. New York: Kogan Page/Nicholas Publishing Company.
- Parent, Daniel(2002). *The Causal Effect of High School Employment on*

- Educational Attainment in Canada*. McGill University and CIRANO.
- Quirk, Kimberly J., Timothy Z. Keith and Jeffrey T. Quirk(200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and Student Achievement: Longitudinal Analysis of National Da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5, 1-9.
- Rumberger. R. W.(1983). Dropping out of high school: The influence of race, sex, and family background.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 199-220.
- Rumberger. R. W.(1987). High school dropouts: A review of issues and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 101-121.
- Rumberger. R. W.(1995). Dropping out of middle school: A multilevel analysis of students and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3), 583-625.
- Rumberger. R. W., Ghatak. R., Poulos. G., Ritter. P. L., & Dornbusch. S. M.(1990). Family influences on dropout behavior in one California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63, 283-299.
- Schoenhals, Mark, M. Tienda, and B. Schneider(1998). The Educational and Personal Consequences of Adolescent Employment. *Social Forces* 77, 723-761.
- Sum, Andrew, Ishwar Khatiwada, Nathan Pond, Mykhaylo Trubskyy, Neeta Fogg and Sheila Palma(2002). *Left Behind in the Labor Market: Labor Market Problems of the Nations Out-of-School, Young Adult Populations*. Illinois, Chicago: Alternative Schools Network.
- Trueba. H. T., Spindler. G., & Spindler. L.(1989). *What do anthropologists have to say about dropouts?*. New York: Falmer.
- UN/ESCAP(1997). *Review of the Youth Situ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in Asia and the Pacific*. UN.
- UNDP(1990).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UN Development Program.
- Unesco(1997). *Turning in to Youth : How to involve it in Unesco's Ideals*.

151 EX/17, Paris:Unesco.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2000). *Multiple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Report to the Chairman, Committee on Budget,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01-71.

청소년 생활실태와 진로에 관한 조사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위하여 지난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연구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의 일환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의뢰를 받아,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훈련원 청소년, 쉼터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등, 기존의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설정, 취업준비 실태 등을 조사하여 청소년 여러분의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 7.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복지정책연구실 연구담당자 이경상 (☎ 02-2188-8815/8825)

- 10) 11) 12) 13) 14) 기타()
- 6-2 두 번째 이유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기타()

응답 보기 :

- 1) 건강상의 이유로 2)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3)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4)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무단결석, 가출 등)
 5)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6) 비행이나 범죄로
 7)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8)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9)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서(차별대우 등) 10)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1)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12)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13)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14) 기타

7. 이전의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둘 당시의 학업 성적은?

- 1) 상상 2) 상중 3) 상하
 4) 중상 5) 중중 6) 중하
 7) 하상 8) 하중 9) 하하

8. 이전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잘 했다고 생각한다 2) 그저 그렇다 3) 후회한다

9. 이전의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 소속된 기관에 오기까지 걸린 기간은?

()년 ()개월

10. 이전의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 소속된 기관에 오기 전까지 거친 주요 생활경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응답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보기 :

- 0) 해당없음 1) 가출 2) 대안학교 3) 직업훈련기관 4) 쉼터
 5) 소년원 6) 선도보호시설 7) 미혼모시설 8) 약물치료기관
 9)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0) 아동보호 치료시설(교호시설)
 11) 오직 파트타임·아르바이트(시간제 불완전 근로)만 하며 생활 12) 취업(전일제 근로)
 13) 진학을 위한 입학학원(검정고시 등) 14) 기술을 배우기 위한 사설학원
 15) 학교에 다시 복학 16) 기타

10-1. 첫 번째 생활 0)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기타()
- 10-2. 두 번째 생활 0)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기타()
- 10-3. 세 번째 생활 0)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기타()
- 10-4. 네 번째 생활 0)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기타()
- 10-5. 다섯번째 생활 0)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기타()
- 10-6. 여섯번째 생활 0)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기타()
- 10-7. 일곱번째 생활 0)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기타()
- 10-8. 여덟번째 생활 0) 해당없음 1) 2) 3) 4) 5) 6) 7) 8) 9)
- 10) 11) 12) 13) 14) 15) 16) 기타()

11. 이전의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 소속된 기관에 오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파트타임·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한 번 이상 있다 (☞ 다음 12-1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 2) 전혀 없다 (☞ 13번으로 가서 응답을 계속해 주세요)

12-1. 이전의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장 처음으로 해 보았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 1)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2) 신문 및 우유배달 3)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4) 24시간 편의점 점원 5) 일반상점 판매원 6) 비디오대여점 카운터 및 서빙
 7)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 8)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9)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10)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 11)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12) 여관 카운터 및 서빙
 13) 음식점(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 카운터 또는 배달
 14)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배끼), 서빙 및 접대 15)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6) 주유소 주유원 17)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18) 건설현장 노동
 19) 공장노동 20)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21) 아기, 노인 돌보기
 22) 기타()

12-2. 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다음의 응답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표기해주세요)

응답보기 :

- 1) 보수 2) 시간적 여유 3) 나의 적성 4) 근무환경
5) 숙식제공 여부 6)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가의 여부
7)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함 8) 기타()

- 12-2-1. 첫 번째 1) 2) 3) 4) 5) 6) 7) 8) 기타()
12-2-2. 두 번째 1) 2) 3) 4) 5) 6) 7) 8) 기타()

12-3.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2) 학비를 벌기 위해서 3) 용돈이 부족해서
4) 취업(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5)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6) 주위(부모, 친지 및 친구들)의 권유로 7) 기타()

12-4. 그 아르바이트를 지속한 기간 및 보수는?

- 12-4-1. 전체 지속기간 1) 약 1-15일 2) 약 15-30일 3) 약 2개월 4) 약 3개월
5) 약 4개월 6) 약 5개월 7) 약 6개월 이상
12-4-2. 일주일 기준 약 () 일
12-4-3. 하루 기준 약 () 시간
12-4-4. 시간당 보수 약 () 원

12-5.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보기 : 1) 그런 적 있다 2) 그런 적 없다

- 12-5-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12-5-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1) 2)
12-5-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1) 2)
12-5-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1) 2)
12-5-5.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1) 2)
12-5-6.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1) 2)

응답보기 : 1) 여러 번 있다 2) 한두 번 있다 3) 전혀 없다

- 12-5-7.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12-5-8.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12-5-9.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12-6. 위에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 부당대우 경험한 분만 응답)

- 1)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고 일하였다
- 2) 항의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중단하였다
- 3) 주인이나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 4)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 5) 경찰이나 노동사무소 등 공식 관련기관에 신고했다

12-7.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1) 작성했다
- 2) 작성하지 않았다

12-8.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하였나요?

- 1) 제출했다
- 2) 제출하지 않았다

12-9. 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알고 있었나요?

(☞ 다음의 응답 보기에서 골라, 표기해주세요)

응답보기 : 1) 알고 있었다 2) 전혀 몰랐다

12-9-1.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1) 2)

12-9-2.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 2)

12-9-3. 18세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동의서를
사업주나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12-9-4. 일하다 다친 경우, 업주로부터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2)

12-9-5.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했을 경우,
평일 임금의 30-50%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1) 2)

12-10. 그 아르바이트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1)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 2) 약간 도움이 되었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12-11. 그 아르바이트 체험이 당신이 향후 갖게 될 미래의 직업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1)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2-12. 그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7) 취업할 예정이다(☞ 16-1번으로 가서 16-5번까지(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17-5번까지) 응답한 후, 20번으로 가세요) (취업이란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체에서 full-time으로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창업할 예정이다(☞ 16-1번으로 가서 16-5번까지(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17-5번까지) 응답한 후, 20번으로 가세요)

9)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예정이다(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진학 등)

(☞ 16-1번으로 가서 16-5 번까지(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17-5번까지) 응답한 후, 20번으로 가세요)

10) 취업은 하지 않고, 한 개이상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생각이다

(☞ 18-1번으로 가서 응답한 후, 20번으로 가세요)

11) 취업은 하지 않고, 한 개이상의 파트타임·아르바이트와 진학을 병행할 생각이다

12)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 17-1번으로 가서 17-5번까지 응답한 후, 20번으로 가세요)

(직업교육훈련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하며,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정규학교 교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3)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이다

14)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다

15) 결혼할 예정이다

16)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19-1번으로 가서 응답한 후, 20번으로 가세요)

17) 기타()

15-1. 상급학교로 진학(당장이 아닌 경우에는, 궁극적으로)하시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더 많은 지식을 배워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 2) 좋은 직업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 3)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 4) 좋은 친구들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
- 5)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으므로
- 6)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 7) 남들도 다 가니까
- 8) 당장 취업하려니 엄두가 안나서(취업시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 9) 특별한 이유 없음
- 10) 기타()

15-2. 진학(당장이 아닌 경우에는, 궁극적으로)하려는 상급학교는 다음의 어디에 속합니까?

- 1) 일반 중학교
- 2) 일반고(특수목적고 포함)
- 3) 실업고(특성화학교 포함)
- 4) 예체능고
- 5) 2-3년제 대학(인문사회계)
- 6) 2-3년제 대학(이공계)
- 7) 2-3년제 대학(예체능계)
- 8) 4년제 대학(인문사회계)
- 9) 4년제 대학(이공계)
- 10) 4년제 대학(예체능계)
- 11) 대학원

15-3. 상급학교 진학(당장이 아닌 경우에는, 궁극적으로)을 위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 1) 학교수업
- 2) 학원수강
- 3) 과외
- 4) 자격증 취득
- 5) 경시대회 참가
- 6) 봉사활동
- 7)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

8) 기타()

16-1. 취업(또는 창업)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상급학교에 진학할 실력이 되지 않아서 2) 검정고시 등 진학절차가 번거로워서
3) 나이로 봐서 진학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4) 가정의 경제적 곤란으로
5)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6) 돈을 일찍 벌고 싶어서
7) 기타()

16-2. 현재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직업(창업의 경우, 창업 업종)은?

(☞ 다소 번거롭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6-3.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1) 임금 2) 안정성 3) 시간적 여유 4) 적성
5) 근무환경 6) 전망(유망한 정도) 7) 전공과의 관련성
8) 기타()

164.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보기 :

- 1)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 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 3) 연줄이 없어서
- 4) 여자이기 때문에
- 5) 학력이 맞지 않아서
- 6) 기능(자격증 등)이 맞지 않아서
- 7) 경력이 없어서
- 8)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 9) 임금이 맞지 않아서
- 10)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 11) 기타()

1641. 첫 번째 1) 2) 3) 4) 5) 6) 7)

8) 9) 10) 11) 기타()

1642. 두 번째 1) 2) 3) 4) 5) 6) 7)

8) 9) 10) 11) 기타()

16-5.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응답보기 : 1) 한 적이 있다 2) 한 적이 없다

16-5-1. 직업적성·흥미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1)	2)
16-5-2. 면접훈련을 받아 본적이 있다	1)	2)
16-5-3. 소속기관에서 상담선생님과 의논해 본 적이 있다	1)	2)
16-5-4. 공공취업알선 기관의 상담원과 상담해 본 적이 있다	1)	2)
16-5-5.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1)	2)
16-5-6. 회사에 이력서를 내본 적이 있다	1)	2)
16-5-7.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다	1)	2)
16-5-8. 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을 부탁한 적이 있다	1)	2)
16-5-9. 직업훈련(학원수강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	1)	2)
16-5-10. 현장실습을 나가 직접 직업생활을 체험한 적이 있다	1)	2)
16-5-11. 취업에 대비해서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1)	2)

17-1. 어떤 분야의 직업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까?

(☞ 아래의 분야에서 받기를 원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농·림·어업, 광업분야(과수재배, 목재가공, 수산양식 등)
- (2) 섬유분야(섬유가공, 편물, 염색, 의복제도, 섬유디자인, 섬유기계보전 등)
-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화학제품 제조, 도자기 제조, 위험물 취급 등)
- (4) 금속분야(금속가공, 열처리 등)
- (5) 기계·장비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 (6) 건설분야(토목, 건축, 도배, 미장 등)
- (7) 전기·전자 분야(기계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 (8) 컴퓨터·정보, 통신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장비 운용 등)
- (9)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 (10) 업무관리분야(재무·경영, 생산사무, 사무지원 등)
- (11)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 (12) 운송장비 제조 분야(자동차, 조선, 항공장비 제조 등)
- (13) 산업응용분야(인쇄·출판, 가구 등 디자인 개발, 광학분야 등)
- (14) 공예분야(귀금속, 가구, 자수, 도장 등)
- (15) 금융·보험 및 환경 분야
- (16) 어학분야
- (17) 예능계(음악, 미술, 디자인 등)
- (18) 체능계(에어로빅, 발레 등)
- (19) 기타 _____

17-1-1. 첫 번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기타()
 17-1-2 두 번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기타()

17-2. 다음의 어떤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합니까?

- 1) 사설학원
- 2) 인정직업훈련원(민간직업전문학교 등)
- 3) 공공직업훈련기관(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기능대학 등)
- 4) 사업체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체 부설기관
- 5)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 6)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생산성 본부, 표준협회 등)
- 7) 복지관, 구청
- 8) 통신교육 기관(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TV, 유선방송 등)
- 9) 기타()
- 10) 잘 모르겠다

17-3. 받고자 하는 직업훈련의 예상 기간은 얼마입니까?

- 1) 3개월 미만
- 2) 3개월~6개월 미만
- 3) 6개월~1년 미만
- 4) 1년~2년 미만
- 5) 2년 미만

17-4. 받고자 하는 직업훈련의 훈련형태는?

- 1) 훈련비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 2) 훈련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 3) 전액 개인부담의 교육훈련
- 4) 기업체가 훈련비를 부담하는 교육훈련
- 5) 기타()

17-5. 받고자 하는 직업훈련의 목적은?

- 1) 창업을 위해
- 2) (재)취업을 위해
- 3) 자격증 취득을 위해
- 4) 기타()

18-1. 취업은 하지 않고, 한 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하나의 직업보다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가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 2) 하나의 조직의 통제에 얽매이기 싫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싶다
- 3)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 4) 기타()

19-1.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 2) 직업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
- 3)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아직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
- 4)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5) 아직 진로에 관심이 없다
- 6) 기타 ()

20.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부모 2) 형제 3) 친지·친척 4) 친구 5) 학교 선후배
6) 학교 선생님 7) 학원 선생님 8)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
9) 없음 10) 기타()

21. 이전의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현재까지, 진로와 관련된 다음의 활동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

- 21-1-1. 수강 유무 1) 없다 2) 있다
- 21-1-2. 수강경험이 있다면,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21-1-3.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21-2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 21-2-1. 활동 유무 1) 없다 2) 있다
 21-2-2. 활동경험이 있다면,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1-2-3.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21-3. 진로관련 적성 검사

- [illegible]

21-4. 진로관련 상담

21-4-1. 상담 유무

1) 없다

2) 있다

21-4-2. 상담경험이 있다면,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1-4-3.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21-5. 직업생활 직접체험 프로그램

21-5-1. 체험 유무

1) 없다

2) 있다

21-5-2. 체험경험이 있다면,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1-5-3.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21-6. 직업훈련(학원수강 포함)

21-6-1. 훈련 유무

1) 없다

2) 있다

21-6-2. 훈련경험이 있다면,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1-6-3.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22. 본인의 생활수준을 스스로 평가하면, 다음의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상층 2) 중의 상층 3) 중의 중층 4) 중의 하층 5) 하층

23. 현재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상태인가요?

- 1) 부모님이 모두 계시며 두 분이 함께 살고 있다
- 2)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만 이혼 혹은 별거 중이다
- 3)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만 어머니는 계모다
- 4)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만 아버지는 계부다
- 5)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다
- 6)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계신다
- 7)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장시간의 설문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여러분의 진로 및 취업을
돕기 위한 정책마련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03-05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2003년 10월 일 인쇄

2003년 10월 일 발행

발행인 김 장 호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 2동 15-1(135-949)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 3485-5000, 5100

팩스: (02) 3485-5200

등 록 제 16-1681호 (1998. 6. 11)

ISBN 89-7816-458-7 93330

인쇄처 문영사

전화 : 2263-508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값

원

